

십자가의 여정

십자가의 여정

초판 1쇄 인쇄 2022년 1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22년 1월 28일

지은이 | 송대선(미래교육목회연구소)
지강유철(교회음악지휘)

펴낸이 | 김현우

펴낸곳 | 굿올드북스

등 록 | 제2019-000180호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62

전 화 | 031-937-8389

팩 스 | 0504-200-4740

이메일 | goro@pri-on.com

ISBN 979-11-968570-3-5 [03230]

디자인/제작 | 프리온

- * 이 책은 신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출판사의 협의 없는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엄격히 금합니다.
-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 * 잘못된 책은 교환하여 드립니다.

사순절 묵상

십자가의 여정

송대선 · 지강유철

MEDITATION FOR LENT





머리말 및 사용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탄생한 교회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감격하면서도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걸으신 고난의 여정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자 하였습니다. 부활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손수 일으키신 사건이라면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서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께서 걸으신 지상의 걸음,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활에 이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신실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은총에 힘입어 예수님의 여정,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고자 힘썼습니다. 점차 십자가의 길은 교회가 지켜야 할 귀한 신앙훈련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40일을 의미합니다. 주일을 뺀 사십일의 여정은 노예에서 벗어난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거쳤던 광야의 40년이기도 하고 모세가 훈련받은 광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호렘을 향해 걸었던 시간이며 예수께서 금식 하시며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40이라는 숫자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숫자가 늘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순절을 지나며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당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뜻을 따르는 연습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바를 행합니다. 쉬 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묵상과 실천 사이에는 분명히 이런저런 거리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실천의 가부보다 깨어있음으로 행한 것도 행하지 못한 것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은총에 힘입어 행한 것에 대한 감사와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행하지 못한 부족함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까지가 묵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은 사유

가 아니라 손과 발의 행위입니다.

사순의 시간에 여섯 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비록 땅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 주일,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송축합니다. 묵상의 연속성을 위해 교회력 본문에 따라 주일의 묵상도 함께 실었습니다.

사순절 묵상을 위하여

- 사순절 기간동안 일정한 시간을 정해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 묵상집에 실린 사순절 음악을 들으며 묵상의 분위기를 마련 하십시오
- 시간이 되었으면 음악을 줄이고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이끄시도록 청원하십시오
기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 드러나기는 사람이 성서를 읽지만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읽어주시길 청하십시오.
교회력에 따른 성서 본문과 요절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 묵상 본문을 읽고 침묵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청하십시오. 본문에는 실천을 위한 권면이 없습니다. 실천은 묵상자 개인이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행할 수 있

는 힘 또한 주님께 구한 후 감사로 마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 기도를 드리며 행할 바를 기록한 후 잠시 침묵 가운데 머무
십시오.
- 함께 묵상 모임을 가졌다면 참여한 이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함께 한 이들 덕분에 기도가 더 풍성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차레



머리말 및 사용법

1. 3월 2일(수) 재의 수요일 주저앉기 12
2. 3월 3일(목) 중보자 계서서 15
3. 3월 4일(금) 호오(好惡)를 넘어서..... 18
4. 3월 5일(토) 빛이 있는 동안 21

Ⅰ 3월 6일 사순1주일 _ 성령 안에 익어가다 Ⅰ 24

5. 3월 7일(월) 주께 드릴 것과 받을 것 27
6. 3월 8일(화) 님 안에 머무는 중 자비로 녹아지네 ... 30
7. 3월 9일(수) 깨어 기도하라 33
8. 3월 10일(목) 믿음: 경중(輕重)의 바뀜 36
9. 3월 11일(금) 은밀한 사랑으로 어둠을 건너다..... 39
10. 3월 12일(토) 위선(僞善)이 몸에 밴 42

Ⅰ 3월 13일 사순2주일 _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다 Ⅰ 45

11. 3월 14일(월) 믿음! 48
12. 3월 15일(화) 같은 은총, 다른 걸음 51

13. 3월 16일(수)	신앙의 화수분	54
14. 3월 17일(목)	주님의 모습	57
15. 3월 18일(금)	제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仁慈)!	60
16. 3월 19일(토)	포도원의 노래	63

I 3월 20일 사순3주일 _ 말미로 얻은 지금 I 66

17. 3월 21일(월)	소망이 실재가 되기까지	69
18. 3월 22일(화)	주님의 음성 듣기	72
19. 3월 23일(수)	하나님 나라 찾기	75
20. 3월 24일(목)	영원을 이미 누리네	78
21. 3월 25일(금)	광자(狂者)의 고백	81
22. 3월 26일(토)	기도의 과정	84

I 3월 27일 사순4주일 _ 잔치가 진짜다 I 87

23. 3월 28일(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사람을 찾는 하나님	90
24. 3월 29일(화)	약속의 땅, 모험의 땅	93
25. 3월 30일(수)	기적을 요구하시다	96
26. 3월 31일(목)	장중에 있음을	99
27. 4월 1일(금)	믿음의 벼	102
28. 4월 2일(토)	희생양 만들기	105

I 4월 3일 사순5주일 _ 사랑에 끌려 I 108

29. 4월 4일(월)	임금을 위한 기도	111
30. 4월 5일(화)	길 잃은 시대의 '길', 그리스도	114
31. 4월 6일(수)	알아듣지 못함은	117

32. 4월 7일(목)	십자가, 의탁의 장소	120
33. 4월 8일(금)	사람이 되신 것은	123
34. 4월 9일(토)	서로 다른 유월절 준비	126

| 4월 10일 종려주일 _ 서로 다른 퍼포먼스 | 129

35. 4월 11일(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132
36. 4월 12일(화)	십자가	135
37. 4월 13일(수)	두 개의 거절	138
38. 4월 14일(목) 성 목요일	전권(全權) 행사	141
39. 4월 15일(금) 성 금요일	십자가의 신비	144
40. 4월 16일(토) 성 토요일	하나님의 침묵, 인간의 도모	147

사순절기를 위한 음악과 해설 150

1. 브람스 <오르간을 위한 11개의 코랄 전주곡> · 151
2. 하이든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 · 153
3. 세자르 프랑크 오라토리오 <팔복> · 154
4. 모차르트 <고아원 미사> · 156
5. 구노 오라토리오 <죽음과 삶> · 158
6. 그레차니노프 <에큐메니컬 미사> · 159
7. 슈만 <미사 사크라> 중 '키리에' · 161
8. 아르보 페르트 <스타바트 마테르> · 162
9. 바흐 <마태 수난곡>, '우리들은 눈물에 젖어' · 164
10. 헨델 <메시아> 중에서 '내 주는 살아 계시고' · 166

3월 2일(수) 1 재의 수요일

시편 51:1-17

주저앉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7)

사순 첫날은 ‘재의 수요일’이라 합니다. 올리브유에 재를 섞어 이마에 바르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죄인으로서의 낙인(창 4:15),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처지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사순 첫날, 우리가 읽는 시편은 범죄한 다윗이 감추었던 자신의 죄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드러났을 때 드렸던 고백입니다. 나단의 지적을 받는 순간 그는 자신이 숨겨 왔던 모습을 선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위엄있는 왕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죄와 허물이 드러난 이가 진정으로 취할 수 있는 자세는 그저 주저앉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황망하기 그지없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겠지요. 그러나 털썩 주저앉아야 합니다. 직전에 의기양양했던 왕의 위엄과 권위를 내려놓고 변명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저앉음은 자신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주저앉은 바닥을 떠난다면 그는 모면할 변명의 꾸러미를 찾으려 바빠지겠지요. 그러니 주저앉아 자신을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주저앉아 머무는 그 시간을 통해 시인은 부서진 자신을 보며 “이게 저입니다 주님”이라고 아뢰입니다. 별거벗은 영혼, 모든 포장을 걷어버린 가난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지요. 그리고 죄의 무게에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황스러움을 토로합니다. 죄를 발견하고 뉘우치는 마음은 있으나 그 스스로는 고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悔改) 뉘우치고 고침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뉘우칠 수 있을 뿐 고칠 능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다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윗은 “주님 이게 저입니다”라는 자기발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런 자신을 바꾸실 수 있는 주님께로 마음을 돌립니다. 앞드려 자기를 본 후 우리러 주님께 호소합니다. “당신만이 저를 바꾸실 수 있고 새 영혼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저앉은 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여기에 길이 있지 싶습니다. 주저앉은 채 주님을 뵙는 것!

주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죄책감으로 그의 인생을 짓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책감으로 짓누르려는 것은 거짓된 유혹입니다. 주님은 고백을 기다리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을 기대하는 분이 아니지요. 그분이 전능하신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자복하는 인생을 찾으셔서 그 영혼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기독교가 죄를 말하는 것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허물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으며 이 허물을 통해 거룩으로 인도하시려는 역설이지요. 그러니 내어놓기는 허물을 내어놓고 얻어누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누리십시오.

기도



주님, 제가 주저앉아 당신을 우러르며 기다립니다. 저를 너무 오래 그냥 놓아두지 말아주십시오. 부서진 마음을 내어드리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아멘.

3월 3일(목) 2

출애굽기 5:10-23

증보자 계서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셔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출 5:23)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약속을 기억하셔서 해방시키고자 하신다는 모세의 전언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출 4:30-31). 게다가 모세는 기적들로 하나님의 증거를 보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해방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현대 저들에게 돌아온 것은 더 가혹한 학대였습니다. 벽돌을 굽는데 필요한 짚을 주지 않으면서 할당량은 이전과 같았으니 더 고통스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지요. 다시 모세를 만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셨으면 좋겠다’고 원망합니다. 모세는 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구원의 소식을 듣고 기뻐한 마음이 채 가

시기도 전에 원망이 가득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의 변심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되돌리기보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더 깊어졌음을 안타까워하며 주님께 토로합니다.

사순절의 여정 중에도 우리의 믿음은 든든한 확신에 거하기도 하고 연약함과 낙담 속에 머물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에 감격하기도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그 감격은 신기루처럼 스러지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일으킬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소망 가운데 구원하시는 이 모든 여정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맺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마음에 새길 것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원망을 정죄하지 않고 중보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을 모세가 중보의 기도도 바 꾸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정죄하지 않고 긍휼을 청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혹 이 십자가의 여정을 주님과 끝까지 걸었다면 이는 우리 공로가 아니라 무던히도 참으시며 다시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중보의 은총 덕분이겠지요.

출애굽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은 주님을 원망하고 애굽의 노

예살이를 그리워 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을 원망하기 바빴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내내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도맡아 받고는 저들에게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모세의 영도는 영광스럽기보다는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지 싶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육반이이자 중보자였습니다.

사순의 기간에 이런저런 결심을 세우고 나아가지만 잘 해내기보다는 연약함으로 무너질 때가 적지 않겠지요. 그 부끄러움을 피하고자 주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까지 저지르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는 것보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품고 중보하시는 은총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한번도 원망을 원망으로 되돌리지 않는 그분의 긍휼에 의지해 이 여정을 걸을 수 있기를 청해야겠습니다.

기도



주님, 저의 오늘 여기는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하는 이들의 중보의 은총임을 기억합니다. 사순의 여정을 오롯이 당신께 의지합니다. 이 복된 여정을 시작하게 해주셨으니 저를 끝까지 이끄시고 끝내 감사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3월 4일(금) 3

사도행전 7:35-42

호오(好惡)를 넘어서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 7:40)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이끈 지도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모세였지만 목이 곧은 이스라엘은 거역을 일삼았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며 배척하였고 광야의 여정에서도 그의 권면을 듣기보다는 노예살이하던 애굽을 더 그리워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머물고 있을 때에는 자신들을 이끌 신,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제작하여 제물을 바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한 것은 저들이 정작 자신들의 여정에서 귀기울여 들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노예살이의 채찍은 잊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저 호오(好惡), 좋

으면 하고 싫으면 안하려는 것이 그들 선택의 기준입니다. 미숙한 인생의 소중한 기준이지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하려는 것은 자기욕망에 충실한 행위일 뿐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자주 우리는 삶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호오(好惡)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지요. 그러니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시내산에 머무는 그 부재를 견디지 못하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미숙한 신앙은 침묵과 부재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인내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저 눈을 만족시킬 대리물을 찾기에 바쁩니다. 애굽의 기억을 되살려 송아지 모양의 형상을 만들고는 신으로 경배하며 떠받칩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으로만 신을 섬기려 합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원치 않는 바를 명하는 신은 거절합니다.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우상과 거짓 신앙은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호오(好惡)를 넘어서야 합니다. 원치 않고 싫어하는 것이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들의 우상은 과거의 향수이기도 하고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음의 소산이기도 합니다. 황소 형상은 애굽의 신이자 저들도 과거에 오래 보아온 신의 형상입니다. 저들은 어

르고 달랠 수 있는 신, 제물을 바쳐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맞춰주는 신을 원한 거지요.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은 자신을 새롭게 하는 여정이며 익숙한 과거와 결별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께서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를 보이셔서 제자들을 새로운 신앙으로 이끄시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을 훈련한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훈련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사순의 여정에서 깨어 훈련해야겠습니다. 호오(好惡)가 내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시비(是非)도 우리의 신앙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호오와 시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는 여정이 되도록 더욱 자주 주님의 뜻을 여쭙보아야 합니다.

기도



주님, 이 영적 여정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할 때 제가 과거나 익숙한 것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알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좋고 싫고에 흔들리는 미숙함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뜻이 저를 이끌게 해주십시오. 아멘.

3월 5일(토) 4

요한복음 12:27-36

빛이 있는 동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
이 되리라(요 12:36a)

밀알 하나가 썩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후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갈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수난의 이 시간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과 이 시간을 위해 당신이 오셨음을 다짐하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간격 사이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영광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감람산의 기도와 같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고, 기도는 그 간격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조차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도해주시길 청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은총이 아니고는 그럴 수 없지요. 하물며 주님도 이를 기도로 이겨내셨으니 그분을 따르는 우리야 새삼 말할 것도 없지요. 간격과 차이 가운데서 점차 우리의 주장이 미미해지고 주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은총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주님이 우리를 더 차지하고 계심을 맞보는 거지요.

따라서 깨어 기도하는 이는 점점 더 그분 뜻에 가까이 가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는 주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점점 자신의 고집만 강해집니다. 자신의 주장과 주님의 뜻이 마구 섞이어 그 간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점점 더 자신의 뜻만 앞세웁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이 사순의 시간에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의 간격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으로 옮겨지는 은총을 누리길 청하십시오. 그분 뜻에 젖어들고나서야 나의 뜻이란 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지 알게 됩니다. 내 뜻을 꺾어주시는 분이 더욱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주님께는 분명한 하늘의 음성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천둥소리거나 알 수 없는 천사의 음성이라고 웅성거립니다. 기도한 이에게는 분명한 응답이며 새 힘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겐 그저 희미한 사건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으나 기도한 이는 확신과 선명

한 이정표를 얻었고 서성거리던 이들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 사이는 점점 멀어집니다. 함께 땀을 갈던 두 여인 중 하나는 들리워지고 하나는 남는 것처럼 천지현격(天地懸隔)이지요.

예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러니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 걸어라.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권하십니다. 박해가 있는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의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을 맞을 때 빛 가운데 걸었던 기억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십시오.” 어둠을 지날 때 빛의 기억이 힘입니다. 지금 우리는 빛이 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우러르며 그 빛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혼이 어둔 밤을 걸어야 할 때 그 영혼은 빛이 있는 동안 얻었던 은총의 은말함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 후의 어둠 속을 홀로 걸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빛이 있는 동안 빛을 의지하며 걸어야 합니다.

기도



빛이신 주님을 의뢰하며 빛 가운데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 계신데 제가 주인인 양, 빛인 양 건방 떨지 않게 은총으로만 걷게 하십시오. 그러다 언젠가 제 영혼이 어둔 밤을 지날 때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당신의 은총을 떠올리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3월 6일(주일) 사순 첫째 주일

누가복음 4:1-13

성령 안에 익어가다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
시더라 (눅 4:1b-2a)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주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악마의 유
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주님은 세상으로 나아가
신 게 아니라 광야로 물러나셨습니다. 바울 또한 예수를 체험
하고 곧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물러나
수년을 머물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
지 않고 왜 광야로 물러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
게 덧입었다고 해도 인간의 내면과 인격이 온전해진 것은 아니
지 싶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성령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인내가 갖추어진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항상 깨어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과 익어가야 할 인생 간에 훈련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 주도권을 이양하는 내면의 침묵과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또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성서는 40을 훈련의 시간으로 상징합니다. 출애굽 후 광야의 시간도, 모세의 목자 훈련도, 엘리야의 호렙산을 향한 길도 40으로 채워졌습니다. 40은 나를 털어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니 영적으로 고양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나를 털어내고 깎고 쳐내는 힘겨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서는 깎고 쳐내는 것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악마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걸 증명해 보라고 능력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좀 드러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취해 보라고도 속삭입니다. 어차피 메시아로 보내졌으니 메시아임을 보여보라 합니다. 유혹은 지극히 부드럽고 필요해 보이며 때로는 신실한 신앙적 외양을 지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받은 유혹처럼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을 들어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덧입으셨지만 그것은 당신을 증명하는 데 쓰일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만을 새기며 그 안에 머무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졌지만 신앙적으로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거룩하심과 은총을 덧입은 것인데 마치 본래 내 것인 양 그걸 누리거나 사용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님처럼 말씀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 약함 속에 머무는 이는 겸허함으로 인하여 자기를 부인하지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축구 경기를 지켜보면 공을 잡지 않는 이에게 태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을 잡고 상대편 골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에게는 방해와 태클이 들어옵니다. 골문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벽이 둘러쳐지고 막힙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 할수록 더 많은 훼방과 태클이 있습니다. 불평할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믿음의 형식만 지닌 이에게 무슨 훼방과 시험이 있겠습니까?

기도



주님, 당신께서 주신 은총과 사랑을 마치 제 것인양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저를 사용해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도구된 종이 주님의 영광을 차지하지 않게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제 영혼에 남게 하시고 삶에 녹아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3월 7일(월) 5

요한1서 2:1-6

주께 드릴 것과 받을 것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요일 2:5)

믿음의 공동체를 돌보는 요한의 편지에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믿음의 자녀들에게 권하는 덕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이 베푸신 사랑에 흠뻑 젖어 살았던 요한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주요 덕목은 둘로 요약됩니다. 바로 죄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요한은 이 두 덕목을 사랑의 새 계명으로 정의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즈음에는 회개와 죄의 용서에 대한 인식에 민감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의 소중함을 새기고 그 감사와 감격을 누리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함에 젖기도 하고 신앙연륜이 쌓이며 죄의 고

백과 용서를 가벼이 여기고 형식으로 지나칩니다. 분명한 것은 죄의 고백과 용서가 희미해지면서 사랑하는 힘도 희미해집니다.

신앙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마치 구심력에 이끌리듯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날마다 그분과 생생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선한 것의 감사와 부족한 허물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과과의 관계가 생생해질 때 생겨나는 내적이고 영적인 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지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하기에 새 계명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것은 초신자 시절에만 할 일이 아니라 갈수록 더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계명을 지킬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용서받은 감격은 힘이 되어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부족함에도 용서받았기에 그 은총이 우리를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계명은 짐, 무거운 부담이 아닙니다. 믿는 이를 넘어뜨릴 시험 도구가 아닙니다. 용서의 은총을 입은 이가 그 은총을 삶에 담아내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감사의 응답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지라 넘어지기도 하고 간혹 길을 벗어

나기도 합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은 중심이신 그리스도, 구심력이신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서 날마다 공급받아야지요. 사랑이 이 믿음의 여정에서 생성되는 은혜의 길이며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고 은총으로 걷는 길임을 확신하기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랑은 숙제가 아니라 거저 누리는 은총, 주님의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새 계명은 껌냥도 안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차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용서받고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사랑하며 사랑 그 자체이신 분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새 계명, 사랑 없이 그분을 안다거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믿는 이는 언제나 그분께 허물을 들고 나아가 용서를 받으며, 날마다 사랑을 행할 새 힘을 얻습니다. 이 신비를 마다하고는 아무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님. 날마다 순간마다 제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부족함과 허물을 드러서 사랑의 힘을 얻는 이 기막힌 교환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아멘.

3월 8일(화) 6

시편 17편

님 안에 머무는 중 자비로 녹아지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
족하리이다 (시 17:15)

선을 베풀고 씩씩한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그에 따른 고통을 겪는다면 수궁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작가 이츠키 히로유키는 이 세상에서 선을 베풀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선을 베풀고도 상처받고 고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시편의 시인 또한 바른길을 걸었다고 여기건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온갖 손가락질과 공격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런 처우를 겪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공격하는 이들은 그가 아예 사라져주기를 바라듯 그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언어는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저들의 뻔뻔함

과 오만함에 몸서리를 칩니다. 혹여 잘못된 것이 있나 싶어 그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밤새워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살피고 걸음을 헤아립니다. 그렇게 돌이켜보니 작금의 현실이 더 용납되지 않습니다. 조심스레 걸어온 걸음만큼의 분노가 뒹쳐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복수심에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이 억울함과 분노를 자기를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 쏟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전부를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는 고상하지 않습니다. 상처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가 어떻게 예를 갖추겠습니까? 주님 다 아시지 않느냐며 항의할 수밖에요.

오 하나님, 저 지금 무지무지 화가 났습니다. 아무개 그놈, 개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걱정이 되어 머리는 빠개질 것 같은데 저에게 온 기회를 놓쳐버린 건 이번에도 분명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정말이지 낙심천만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몸과 마음이지만 그런 채로 여기 10분 동안 당신 앞에 앉아 있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도 알아요. 그래도 아무튼 10분 동안 여기 이대로 머물러 있겠습니다.

(해리 윌리엄스, 케임브리지 삼위일체 칼리지 학장, 『세기의 기도』)

그분 앞에 머무는 10분!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중에 분노에 잡힌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그분이 우리를 녹여내십니다. 내가 옳다고 인정받아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머무는 동안 분노를 녹여내시고 당신으로 채워주십니다.

시인은 허물이 없어서 당당하게 그분께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라는 신뢰를 품고 나왔습니다. 이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어떻게든 풀어주실 것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깰 때에 주님의 얼굴 뵈는 것! 그것으로 넉넉히 만족합니다. 신앙은 적을 이겨서 쟁취하는 승리가 아니라 주님께 받아들여졌음으로 인하여 누리는 위로입니다. 이로써 새로운 신앙의 경계(境界)로 진입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시비가 그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이제 주님의 얼굴을 뵈는 이 어둠의 땅에서 그 얼굴빛이 주는 기쁨과 만족으로 인하여 믿음의 걸음을 계속합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든 거절당하든 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



주님, 혹여 이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가 일거든 그걸 그대로 당신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분노와 억울함이 주님 안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저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3월 9일(수) 7

누가복음 21:34-22:6

깨어 기도하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
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눅 21:36)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한 예고입니다. 거짓이 진리인 양 유혹하고, 분열이 거듭되며, 서로 대결하며 일어나는 전쟁과 혼돈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시련 한가운데서 자신의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며, 지혜를 줄 터이니 인내로 생명을 얻어야 한다고 일러주십니다. 이 말씀을 본문의 문자대로 역사적 종말에 대한 전조로 읽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신앙인이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자 할 때 이를 어떻게든지 거스르게 하려는 세상의 유혹과 압박으로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참 스승은 제자를 깨우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생은 사람들이 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거짓 선생은 깨우는 이를 싫어합니다. 잠든 줄 모른 채로 두는 것이 그들을 부리기 좋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의 반대편에 방탕과 술취함, 걱정으로 짓눌리는 삶이 있지요. 깨어 있음이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분과 깊은 교제에 머물며, 주님이 우리 주인되심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반대편에는 자기 자신, 에고에 사로잡혀 쉽없이 걱정하거나, 걱정을 잊고자 취하든지, 잊기 위해서 어딘가에 쉽없이 눈독을 들여 탐닉하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술취함과 방탕은 마음이 거짓된 것에 짓눌린 이가 취하는 다양한 모습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걱정은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 노릇 하려다 그럴 만한 힘도 지혜도 없어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이는 걱정이 덮칠 때 이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들고 나가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당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이끌리셨습니다. 수많은 궤방과 음모, 위협이 가득한 이 여정에서 오로지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주님도 깨어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사순절의 여정은 깨어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기도 없이

십자가를 대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걱정과 두려움이 되고, 불안이 됩니다.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설득하려 했던 베드로처럼 “뭘 꼭 굳이 그 방법을 택하시느냐”고 할 수도 있지요. “더 낫거나 괜찮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다른 길을 찾다가 끝내는 그분을 죽이려는 거짓 선생들에게까지 닿고 맙니다. 성서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기록하는데 처음부터 유다가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한 그는 이제 제 목적을 이를 기회만 엿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오직 그가 노리는 기회만 향합니다.

사순의 여정, 십자가의 길은 깨어 기도함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을 두리번거리거나 걱정과 탐닉으로 주님의 걸음을 놓치지 않도록 깨어있길 기도하십시오.

기도



오늘 하루 순간순간 제가 무엇을 하든 깨어나 다시금 주님을 우러르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사로잡으려 걱정이 덮쳐올 때 당신께 저를 맡긴다고 소리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 안에 머물며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멘.

3월 10일(목) 8

빌립보서 3:2-12

믿음: 경중(輕重)의 바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
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 3:8-9a)

내적인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면 외적인 치장에 더 마음을
쏟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은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 종교적 형식에 더 매이게 됩니다. 속이 메마를수록 외
양을 더 꾸미고 그것으로 비교하고는 자신을 내세우고 남을 비
난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할례를 신앙의 핵심인 양 자랑하는 이들을 보
며 안타까워합니다. 물론 그 자신도 한때 그러한 표식에 목숨
을 걸었던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
서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육체적 증거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

까워하며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피하고 싶은 것이 된 거지요.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이라는 극적 언어로 표현하는 그 전환과 변화는 무엇일까요? 내게도 믿음의 여정에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신앙이란 이렇게 경중(輕重)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절로 사모하는 것과 절로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며 그 변화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음을 감사하는 거지요.

정녕 사랑에 빠진 이는 사랑의 소중한 흔적을 함부로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함부로 평가되거나 희화화될까 두렵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면 그 사랑을 더 깊이 간직하고 더 돈독하게 하여 더 은밀한 기쁨으로 지켜가고 싶어집니다. 믿음 또한 사랑과 같습니다.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내적인 기쁨과 든든함을 지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도 않고 그러한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증거 삼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이제 해(害)로 여깁니다. 이제 그에게 소중한 것은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이 삶의 길이요 지향입니다. 그분을 알면 따르게 되고 따르면 닮아가니

자연스레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여정에 참여합니다. 진리이신 분을 알고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그의 생의 목표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어둠에서 해매는 것도 아니고 고군분투도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로잡으셨기에 그 은총에 감격하며 그 은총이 낳은 힘으로 그분을 잡고자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분이 앞서가셔서 이미 바울에게 이정표가 되었고 힘과 격려를 주시며 끌어당기십니다. 바울은 그가 힘쓰는 모든 것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온몸과 맘으로 찬양하며 감사만이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 안에서 소중한 것, 열심히 붙잡아야 할 것과 하찮은 것,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분별되어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사순의 시간이 경중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길 청해야겠습니다.

기도



주님, 이 사순의 시간을 걷는 동안 제게서 쓸모없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걸음과 말씀을 더 깊이 간직하는 시간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배설물을 움켜쥐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생명과 진리로 감격하는 시간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3월 11일(금) 9

시편 27편

은밀한 사랑으로 어둠을 건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
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
나이다 (시 27:4,8)

시편 27편은 대조적인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반부 (1-6)는 잔잔한 평화가 시인을 감싸고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주조음을 이룹니다. 시인은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자신의 삶을 통해 고백합니다. 주님은 시인의 생을 비추는 빛이며 힘겨운 날의 피난처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주님 계신 성전이며, 그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르러는 것이 유일한 지향입니다. 그러나 후반부(7-14)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시인은 위기를 겪고 도움의 손길을 주님께 화급히 청하고 있습니다. 길목마다 원수들이 지키고 있고 증언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 그를 외면해 그는 사면초가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오직 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시인은 그 말씀을 의지해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찾으라고 하신 당신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그분이 당신을 찾으라 하신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믿는 이가 의지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능력이 아니지요. 그분이 먼저 찾으라고 하신 그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당신 말씀에 한없이 성실하신 분이니 우리가 찾을 때 숨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깨끗하게 당신을 기다립니다.”

사순의 시간은 영혼의 어둔 밤을 지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모두에게 외면받으시고 홀로 걸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순의 시간은 이 시편의 후반부처럼 원수와 적들의 위협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전반부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평화, 성전에서 우러렸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로 인한 감격을 다시금 곱삭이며 우려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위협 가운데 찾으라 하신 분은 바로 평안 가운데 함께하셨던 분이시고, 원수를 물리쳐주실 분은 은밀히 사랑을 속삭여주셨던 분이시지요.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신 분은 끝내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

십니다.

사순의 여정은 일상에서 누린 하나님의 평강, 성전에서 우러
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서 또 다른 방
식으로 만나는 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시며 원수들의 틈새에서 구원의 나래를 펼치실 하나님도 임
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다짐해야 할 것은 원수들의
독세와 위협이라는 어둠에 휘돌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머물
면서 들었던 말씀, ‘나를 찾으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
며 곳곳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기다림 가운데 약속은 실상이
되고 사순은 은총이 됩니다. 사순은 일상에서 보였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십자가의 길에서 고난을 감싸안으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됨을 체험하는 여정입니다. 말씀과 약속 가운데 임
하셨던 하나님은 이 땅의 시련과 위기, 악의 범람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재자이십니다. 그러니 기다림은 결코 막연하지 않습
니다.

기도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을 만
났을 때 짓눌리지 않고 주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부르짖는 중에 주시는 위로
와 은총으로 어둠을 건너게 하여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3월 12일(토) 10

마태복음 23:37-39

위선(僞善)이 몸에 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
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
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
도다 (마 23:37)

오늘 주어진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
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위선과 거짓이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선한 뜻마저 비틀고 오역(誤譯)을 일삼기 때문이었습니
다. 저들은 선생으로, 아버지로, 지도자로 불리기를 좋아합니
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만이 참된 스승이요 아버지라고 일러
주십니다. 남들 위에 서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말고 하
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것에 마음을 두라고 하십니다.
전자는 비교하며 남을 아래에 두고 위에 서서 하나님을 잊게
되고, 후자는 말씀을 살아내는 중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외식(外飾), 겉만 꾸미는 위선자들을 향한 책망은 신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훼방꾼이며 악한 이들을 등쳐 먹으며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으로 일관된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자신의 불선(不善)을 고백하면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련만 선으로 가장해 하나님을 거역하며 백성을 속입니다. 위선(僞善)이 위태한 것은 점차 익숙해지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기억조차 못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었지만 익숙해지면 그마저 없어지지요. 그러니 거짓의 가면을 쓴 것은 잊고 혹여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불같이 화를 내거나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며 큰소리치게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거짓을 꾸미다가 거짓의 길에 익숙해지고는 거짓이 삶의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오만은 그의 숨결이 됩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형편에 맞게 왜곡하고는 말씀의 바른 해석자로 자처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허물을 씻는 거울삼아야 하건만 말씀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기로 삼아 죄인을 만듭니다. 하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며 땅의 편의대로 해석하고는 다른 사람들마저 그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그들은 말씀의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밝히는 이들을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돌을 던져 묻어 과거로 삼고는 박제된 이

름으로 추모합니다. 말씀은 묻어두고 그 이름만 예언자로 떠받칩니다. 혹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받드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다면 그를 따르기보다는 바리새인처럼 돌을 던지는 자리에 서지 않을까?’라며 자신을 돌아본 필립 안시의 말은 우리의 새김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리가 면면이 이어지는 것,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는 것은 어둠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이들, 거룩한 말씀의 포로가 된 종들로 인해 서지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인생은 하나님을 거둬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허물을 덮어두시고 사랑으로 다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길, 사순절의 길, 위선을 내려놓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대로 내어놓는 걸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위선을 벗는 길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기도



주님, 당신 앞에서만은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한 제 가장 비참한 모습을 꺼내게 해주십시오. 점점 진실과 거짓의 간격이 벌어져 저도 어쩔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서 언제나 저 자신을 내어놓는 은총을 허락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3월 13일(주일) 사순 둘째 주일

누가복음 9:28-36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
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
라(눅 9:28b-29)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중 그 모습이 변하셨고 광
채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수여자 모세와 예언자의 대표
이며 종말에 메시아에 앞서 온다고 예고된 엘리야와 장차 겪으
실 수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 시간은 영광에 가
득한 시간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모세를 통해 일어
났던 이스라엘의 구원과 엘리야를 통한 예언자적 말씀선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수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의 사역은
'사랑'과 '죄의 용서'를 통해 그 나라를 맛보는 감격에서 홀로 수
난의 길을 오롯이 걸으시는 '십자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죄

를 용서받고, 병이 나은 이들과 기뻐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사역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이었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걸음은 오롯이 홀로 걷는 걸음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도 함께 갈 수도 없는 그분만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때로 믿음의 벼들과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축하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을 밀쳐놓고 홀로 주님 앞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이전에 누렸던 모든 기쁨과 감격은 홀로 씨름하는 시간의 온전한 결단을 위해 먼저 주어진 선물이요 힘입니다. 그것이 횡방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홀로 있는 그때에 아버지께서 더 가까이 계시며 함께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신 무렵 잠에 빠져 있던 제자들이 눈을 뜨고는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이 지속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초막 셋을 지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거하길 청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 초막 가득한 영광 주위를 맴돌며 그 영광을 누리고 싶은 거지요. 성서는 분명히 일러 줍니다. 저들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횡설수설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혹여 맛보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는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이는 기도 가운데 그분의 뜻을 되묻고 여쭙는 가운데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영광에 취하면 도리어 망하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더 여쭙고 기도했다라면 덜 어리석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위험한 물건인 양 한사코 피하려 하거나 도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 복음을 전하하시며 떠받드는 이들을 피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자다 깨어서 어쩔 줄 모르는 저들에게 울리는 하늘의 음성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멋진 제안을 할 때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수용하신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이전보다 더욱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마디 한 마디 말씀이 구원의 절정의 순간 순간을 가리키고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귀를 더 기울여야 할 시간입니다.

기도



주님의 영광을 우러르며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셔서 하늘 음성을 알아채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3월 14일(월) 11

로마서 4:1-12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
니라 (롬 4:3)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후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제국 이집트를 꺾으시고 노예 백성을 구원하신 것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신 결과였으며 여러 민족이 우거하던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신 것도 아브라함과 의 약속의 이행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정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정체성만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고 그 자부심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정체성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 근본 정신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기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깊은 뜻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자격이나 공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 - 여겨주셨음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된 은총의 관계를 마치 이스라엘이 당연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양 여기는 것은 착각임을 일깨웁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공이 있거나 자격이 있다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그런 자격과 공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택하시고 그와 영원한 약속을 맺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총이지요. 이스라엘이 자부심으로 여기는 다윗 왕조차도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라는 일방적 은총으로 복된 사람이 되었다고 일깨워줍니다.

믿음이라는 이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인지라 그 시작은 아름답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죄의 심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서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믿음을 제 공로로 착각하고, 은총으로 감당한 것을 아주 잠시 감사한 후에 제 능력인 양 여김니

다. 더 나아가 그 수고와 공로를 내세우면서 다른 이의 부족함을 힐난하는 어리석음으로 내디딕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은 갈수록 더 깨어 있는 여정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점점 나는 작아지고 은총의 주님이 커지십니다. 선한 것이 있다면 주님 주신 은총의 열매이며 혹여 허물이 있다면 그것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격없는 인생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을 표상하는 것인데 민족이나 혈통, 할례받은 행위로 자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을 강조하게 되면 타민족을 이방인이라고 경멸합니다. 할례라는 표식만을 강조하면 선하고 바른 삶조차도 무할례자로 심판해 버립니다. 율법을 모르면 아무리 양심에 따라 거짓을 멀리하고 선함과 경건을 추구해도 멸망받을 자라 저주합니다. 그러니 강해지는 것은 선민이라는 자의식입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은총을 잊으면 그 착각의 끝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기도



은총과 감사로 시작된 이 신앙의 여정에서 저를 앞세우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일깨워주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도 오직 죄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가리워주신 은총의 열매임을 알게 하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3월 15일(화) 12

고린도전서 10:1-13

같은 은총, 다른 걸음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 10:12)

어릴 적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려주던 출애굽 이야기는 굉장한 서사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바로를 무릎 꿇린 열 번의 기적,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이 물을 벽처럼 세우고 건넌 이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 광야에서 주어진 매일의 만나와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내 앞에 그런 기적이 펼쳐진다면 나라면 저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텐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그분의 손길을 누리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불충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지나면서 나 또한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알게 되었지요. 가끔은 도리어 그들보다 더 미련하고 목이 굳은 인생임을 발견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경향이 과거 구약 백성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신약 백성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일러주며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는 출애굽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의 여정을 비교합니다. 저들은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였습니다. 만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영적 음식을 먹고 바위에서 솟는 영적 생수를 마셨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우들은 믿음으로 받은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매일의 영적 양식을 떠올리며 저들과 다른 차이가 아님을 발견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토록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패역, 우상숭배와 악행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광야에서 죽음을 맞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순간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해도 그것을 마치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처럼 당연히 여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뒷전이 됩니다. 그저 우리 필요를 채우신 다음 뒤로 조용히 물러나 계시면 되는 분입니다. 베풀어주신 은총이 아무리 많아도 아직 채워지지 않은 욕망으로 허기만 가득합니다. 이미 받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채워지지 않은 것을 향한 욕망은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어서 불평과 원망으로 타오릅니다. 그러니

임금님께 진 빚 만 달란트(1달란트=6,000데나리온)를 막 탕감받고
도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
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출애굽을 겪고 구원을 체험한 교회의 성
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의 이야기를 그저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읽을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말합니
다. 그러니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입
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노골적으로 읽는다면 스스로를 광야의
저들과 다를 바 하나 없는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
어지는 그 어떤 것도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야 설사 시
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맞는 힘
도 주시는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악함을
아셔서 미리 피할 길도 마련하시는 선하신 배려를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선 줄로 여기지 않는 것! 은총의 시작입니다.

기도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을 어디쯤 세워두고 있는지요. 제 필요에만 호출되는 당
신인가요? 아니면 제가 언제나 우러르는 당신입니까? 이 사순의 시간을 통해
저를 깨어있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과 작은 손짓에도 당신을 향하는 은총을 허
락해 주십시오. 아멘.

3월 16일(수) 13

시편 105:1-15(16-41), 42

신앙의 화수분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아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
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시 105:5)

깊고 강렬한 내면적 체험은 겪는 이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화석처럼 굳어버리지 않지요. 때때로 처음보다 더 생생하게 떠올라 새로운 깨달음과 변화를 더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박해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은 사도행전에서 세 번(행 9:1-19, 22:1-16, 26:12-18)에 걸쳐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바울의 새로운 깨달음이 더해집니다. 이야기를 역지로 덧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깨달음이 더 깊어져 그 체험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전히 새 힘과 눈매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이 되는 출애굽도 그와 같습니다. 강대한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를 경험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사건은

이스라엘 신앙의 화수분이며 언제나 그들의 신앙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 후에도 예언자들과 사제들을 통해 광야를 기억하길 거듭 요청받았습니다. 왕국의 승리와 감격스런 사건에서도,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던 시간에도 그들은 광야를 기억하며 조상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떠오르는 기억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감사의 시간에 광야는 하나님의 한없는 돌보심의 연장이지만 포로로 끌려가거나 무너진 성전 앞에서는 그리도 순종 않던 조상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자신들을 보게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자비 가득한 감격의 장이기도 했고 조상들의 죄로 가득한 불순종과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거울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진단하는 거울이었습니다. 남편을 저버린 여인으로 이스라엘이 비유(호세아)되기도 하고 정의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선포(아모스)되기도 했습니다.

시편 105편은 또 다른 거울을 보여줍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를 위해 준비된 사람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 아들, 성조(聖祖) 시대부터 출애굽을 준비하신 분이실 정도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우

리가 아는 범주 너머에 계시는 분, 우리 신앙의 상상력을 더 확장해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을 통해 준비했던 하나님의 주도면밀하심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의뢰하며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새로운 발견과 눈뜸은 우리 신앙을 넓혀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2,000년 전의 십자가의 길 또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과거의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미처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능력을 다시금 발견하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그저 과거의 사건으로 읽고 기억하면 십자가는 불편한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고자 짊어지신 십자가로만 읽는다면 신앙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광야로 돌아가길 요청받듯 이 사순의 여정에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만지며 새롭게 솟구치는 생명의 능력을 누려야겠습니다.

기도



주님, 제게 이미 영원한 생명의 화수분을 주셨는데 그걸 잊고는 엉뚱한 걸 붙잡으려고 헤매는 것은 아닌지요? 이 사순의 여정에 십자가의 비밀과 신비와 능력을 다시금 맛보는 은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3월 17일(목) 14

요한계시록 2:8-11

주님의 모습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계 2:9a)

계시록 앞부분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서머나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아름다운 소아시아의 도시이지만 주교 폴리갑이 순교할 만큼 핍박이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의 운을 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교회를 통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에베소교회를 향해서는 일곱 별을 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주권자)라고 하였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쌍갈날을 가지신 분(심판자)이라 하였는데 서머나교회에는 알파와 오메가요 부활하신 분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달리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은 각 교회에

처한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 마음에 새기며 확신해야 할 주님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함이지요.

서머나 지역에는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했고 복음을 훼방하였습니다. 서머나교회의 환난은 이들의 박해로 인한 것이었고 그 때문에 교회는 궁핍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로 “너희는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일으킨 궁핍과 가난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공홀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으라 권면하십니다.

가난한 이, 그래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공홀은 성서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며 공홀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도 산위의 설교를 통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선언하셨지요.

주님은 서머나교회에게 지금 겪는 환난으로 인해 궁핍을 겪으나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 궁핍에 임하는 하나님의 공홀에 눈뜨고 주님의 부요함을 발견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게다가 그들이 겪는 고통은 열흘, 끝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분의 섭리가 서머나교회에 머물며 박해는 영원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잠시에 지나지않습

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분, 시작이자 끝이신 분을 의지하여 승리의 월계관을 쓸 것을 소망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박해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질 것이니 지금의 환난이 한없이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환난이 성도의 생명을 빼앗을까 공포에 휩둘려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생명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알려주십니다.

지금 이 여정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실까요? 오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만나야 우리 삶이 온전해질까요? 마치 다윗이 거둬지는 적들의 공격에서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라 노래하고 지친 영혼이 되어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고백하며, 그를 뒤흔드는 세파 앞에서는 “주님 나의 반석”이라 찬송한 것처럼 삶의 순간순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알맞이로 다가오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



박해 가운데 서 있는 서머나교회를 향해 ‘내가 시작이고 마지막이니 박해의 순간도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알려주신 주님의 친절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제게 오시는 당신의 모습을 알려주셔서 저를 온전케하시는 당신을 제대로 뵈게 해주십시오. 아멘.

3월 18일(금) 15

시편 63:1-8

제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仁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 63:3)

믿음 안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점검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잘 살피는 이는 자신에게 정녕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영혼의 형편은 누가 대신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만이 자기 영혼의 형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없이 얼마나 허기지고 목마른 형편에 처했는지를 탄식하며 주님을 찾노라고 고백합니다. 그 허기와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으니 ‘하나님 당신 없이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라며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는 거지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인생인지 알기에 시인은 주의 자비가 제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

비 없이 생명은 더 이상 생명 노릇을 할 수도 없고 아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떠나 제멋에 취해 자기 길을 걸어본 둘째 아들(눅 15장)의 경험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 절망의 나락에서 야 아버지의 그늘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지요. 그러니 정확하게 자신을 파악합니다. 주님 당신의 자비가 제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그렇게 몸으로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을 뵈고 말씀에 젖어들어 영혼의 갈함과 허기가 채워지니 한없는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니 온몸 가득한 감격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에 취하여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다윗과 같은 심정이겠지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와 주님 앞에 내어놓았으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사람들의 비난을 피해 우물에 왔다가 예수님 만나 생명 가득한 기쁨을 누린 여인의 감격(요 4:32)-이 있다고 슬쩍 물리치신 예수님의 마음을 엿보는 것과도 같지요.

그렇게 충만한 시간을 맛보고 자리에 눕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겪은 여정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다시 떠오르고 지나갑니다. 여기까지의 여정 그 어디에도 은총 아닌 것이 없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상이 고요로 덮여갈수록 부여진 은총이 주는 법열(法悅)이 쉬 잠 못 들게 합니다. 시인은

베푸신 손길을 하나하나 세어봅니다. 그저 도우심에 안도만 하고 지나쳤던 사건 하나하나에 스며 있는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짚어보면 더 생생히 살아오고 더 놀랍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밤새 지난 은총의 기억들을 묵상하다 피곤도 모른 채 새벽을 맞이합니다.

시편의 서술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시인의 현재는 8절입니다. 하나님 손에 잡힌 시인이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거꾸로 되돌아보는 여정(1-7)이며 이렇게 세밀히 돌보시는 주님이시니 앞으로는 더욱 하나님께서 돌보시리라는 확신의 고백(9-11)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이렇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니 앞으로의 여정은 오죽하시랴 싶은 확신 가득한 소망입니다. 소망은 앞으로 그랬으면 하는 불안한 기대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은총으로 이끄신 분이시니 앞으로의 나날은 더 그러하리라는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보다 더 실재적입니다.

기도



깨어 있게 하셔서 저희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총을 선명히 되새기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발견한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놀라게 하시고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 제 목숨보다 주님 자비가 더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3월 19일(토) 16

이사야 5:1-7

포도원의 노래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가 (사 5:4)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는 찬송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진실일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과장 아닐까 싶었지요. 그러나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를 새겨 읽노라면 이 찬송이 참을 말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포도원을 가꾼 주님의 정성은 지극합니다. 주님은 최선을 다하여 밭을 마련하고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다리기까지 주님은 포도나무의 필요를 오롯이 채우셨습니다. 좋은 포도열매를 얻고자 애쓰신 주님의 돌보심은 세밀하셔서 놓치심이 없습니다. 어미가 설사 잊더라도 잊

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맺힌 것은 들포도였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시공 어느 순간과 틈도 놓치지 않고 그분은 우릴 돌보셨건만 우리는 땀병땀병 하나님 없는 시간을 지나고 그분 머무시는 자리를 스쳐 지나쳐 버린 걸까요? 유대인의 안식일 기도에 ‘하루가 지나가고 한해씩 사라지건만 저희는 기적들 사이를 장님처럼 지나갑니다.... 저희가 어디를 바라보든 떨기에 불이 붙었건만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사 청합니다. 어느 때에야 우리는 ‘아하’ 하며 눈을 떠 그 사랑의 실상을 보며 ‘네 정녕 그렇습니다’라고 그 찬란한 사랑의 파노라마에 감격할까요? 눈멀어 보지 못하고 불평했던 순간들을 부끄러워하며 고개 숙이게 될까요? 주님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에 더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분의 섭리가 온전하심을 일러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정성에 반하는 들포도를 맺은 유대인들을 향한 질타에 고개 끄덕일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당신의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정성스레 살피는 은총을 기억하며 그 자비에 놀라 감격하길 기도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허리를 동이고 시비를 가려보자고 하면 무슨 변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은총을 잊고 헛된 것에 취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롭던 읍조차 주님

께서 허리를 동이고 시비를 가리자고 하셨을 때 그토록 항의했던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고, 알지도 못하며 해아린 양 말하였음을 부끄러이 여겼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겠지요.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신학적 명제로 규정하고 넘어간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길이 영원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요 신비라면, 우리는 그 신비 안에 담긴 한 없는 그분의 사랑을 길어올려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은총으로 적셔야 합니다. 마르지 않는 우물을 그저 바라본다고 해서 무슨 해갈이 되겠어요? 어느 부자집 아들이 창고에 가득한 보물은 잊은 채 장부에 기재된 재산목록만을 날마다 읊조리고 정확히 외운다고 해서 그에게 무슨 하등의 유익이 있겠냐고 물은 선현의 지혜가 옳지요.

가없는 은총에 젖어드는 이는 하나님으로 물들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가 원의(原意)가 되고 그에 합당한 열매가 은총으로 맺히겠지요.

기도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두 이레 강아지만큼만이라도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실상을 놓치고 눈먼 장님처럼 허망하게 지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저희를 도우십시오. 아멘.

3월 20일(주일) 사순 셋째 주일

누가복음 13:1-9

말미로 얻은 지금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눅 13:3)

누군가가 겪는 일을 두고, 또 일어난 어떤 사건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쑥덕거림은 자연스레 사람을 향하고 허물과 잘못을 꼬집는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고약한 버릇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부친은 벼들과 어울리다가도 누군가를 평하거나 비난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면 취한 척하며 그냥 자리에 누웠다고 합니다. 잠든 것으로 타인을 평하는 자리에서 입을 다문 것입니다. 다산 선생이 기록으로 남긴 것을 보면 부친이 자식을 위해 일러준 것이기도 하겠지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는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이러네 저러네 하고 있습니다. 망대가 무너져 죽고, 갈릴리 사람들이

피흘린 것은 분명 그들에게 죄가 있으니 그럴 것이라고 수군댁니다.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이들에게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것처럼 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남을 향한 눈매를 자신을 향하게 하는 거지요. 십 수 년 전 동남아에서 쓰나미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신앙을 빌어 할 소리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돌아볼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를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에서 포도나무는 정성스레 가꾸어야 할 과수이기에 포도원에 심어 관리하지만 무화과나무는 그렇게 돌볼 만한 나무가 아닙니다. 보통 길거리에 심겨져 있고 성장속도가 빨라 3년이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고 돌보았으니 넘치는 배려와 정성을 기울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베어버리고자 할 때 포도원지기는 한 해의 말미를 구하며 더 열심히 돌보겠노라고 청을 드립니다.

듣는 이들에게 아주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평

범하고 작은 것까지 정성을 기울이는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유예를 주시는 은총입니다.

남을 함부로 평하고 판단하지 않는 만큼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닐까요? 남을 판단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자길 돌아보게 되면 자연스레 헛된 가지들을 잘라내게 되고 선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이것이 유예받은 이가 새겨야 할 마음입니다. 비유에 따르자면 지금 우리의 현재는 선하신 중보자가 마련해 주신 말미입니다. 제가 잘라서 지금 여기가 있는 줄 아는 것은 큰 착각에 속합니다.

사순의 시간은 말미를 선용하는 시간입니다. 중보자의 청으로 마련된 이 시간을 감사하며 아끼는 지혜를 가져야지요. 이러쿵저러쿵 수군대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침묵하는 가운데 소란한 세상의 평가와 판단에 빠지지 않고 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이는 복됩니다.

기도



주님 제게 주어진 이 시간이 주님의 은총으로 마련된 말미임을 명심하게 하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침묵할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저 자신을 향하게 하셔서 저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주심을 저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3월 21일(월) 17

시편 39편

소망이 실재가 되기까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
39:7)

삶에서 한결같은 눈매와 태도를 갖추길 바라지만 그런 눈매를 얻기는 쉽지 않고 삶에서 풀어내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머리에서 이는 생각과 마음의 간격 때문에 울화가 치밀기도 하고, 뻔히 안다고 하지만 삶으로 행해지지 않는 차이로 곤고하기도 합니다. 인식과 감정,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마음의 다짐과 의지의 연약함 그리고 주위의 수군댐까지 그 사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휘둘립니다. 시인도 우리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바르고 진실하게 살려 하지만 오해가 생기고, 얹힌 것을 풀려고 시작했는데 기름을 붓는 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자 하지만 가슴은 더욱 불처럼 타올라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끝탕에 적잖게 빠져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잘한 것은 그런 마음을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내가 옳네, 저가 그르네 하는 시비에 빠지거나 아웅다웅하지 않고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꼼꼼이 살펴봅니다. 영원하신 분 앞에서 한낱 숨결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 제 감정 못이겨 치뛰고 내리뛰는 어리석음을 하나님과 함께 지켜봅니다. 입으로는 덧없다 하면서도 작은 오해와 울분에 차서 견디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거지요. 시인은 ‘뜨거운 감자’같아 어찌지 못하는 자기모순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숨결같은 인생임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분노를 풀어주시길 분도 주님뿐이기 때문이지요. 그분 앞에 머물며 시인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제 소망은 당신께만 있나이다’.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세상에서 물러나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의 하나님되심,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시비를 밝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겠다는 자기 의에서도 벗어나십시오. 예수께서 세상의 분주함을 벗어나 고요한 곳으로 물러나 아버지 앞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러면 세상에 머물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 더 청합니다. ‘주님 제가 그리 강하지 못하니 너무 세계는 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손가락질이야 견디겠지만 하나님

이 내리누르시는 것을 오래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는 저를 붙잡히 여기셔서 귀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눈길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내보다 주님 향한 소망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그 소망이 실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시길 청하는 거지요. 시인은 세상의 시비에 놀아나지 않으리라는 결심이 자신을 온전함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니고 주님 앞에 머물며 소망을 주신 분께 매달립니다. 소망이 실재가 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낳은 소망이 실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그것 아니고는 인생은 넘어질 뿐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 의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랬기에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이들에게,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에게 우겨쌈을 당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아무 말없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걸음을 닮고자 한 순간이라도 훈련하는 여정입니다.

기도



주님, 제가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세상에서 겪는 들끓는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 소망과 평안을 얻기까지 저를 놓치지 말고 잡아주십시오. 저의 의에 눈멀어 제 선과 의를 말한다면서 악을 쓰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3월 22일(화) 18

로마서 2:12-16

주님의 음성 듣기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롬 2:15)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보다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순종의 모범을 보여야 했던 거지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 율법을 특권과 자랑으로 삼고는 율법 없는 이방인을 멸시하고 멸망될 이들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착각을 일깨웁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켰거나 율법을 들어서가 아니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준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義)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설

사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본성과 양심에 따라 율법의 명하는 바를 따른다면 그들 자신이 율법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만 의로울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신실한 신앙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율법 안에 제약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 600여 조목에 지나지 않는 율법 조항에 제한받으시겠습니까?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도구 없이도 우리 마음과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직접 관계를 맺으시며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기에 신실한 이들은 언제나 바깥에서 기준을 찾기보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란한 곳을 떠나 고요한 곳에서 침묵 가운데 머물고자했습니다. 그런 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은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선한 도구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독려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을 독려하지는 않고 타인을 판단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율법은 아주 오용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 삼지

않고 서로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게 하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인 율법에 매
이다가 양심과 우리 본성에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밖의 도구에만 기준을 두면 육체만
따르게 되고 마음과 영혼은 점점 함께하지 못합니다. 안팎이
달라지게 되면 마음의 소리는 흐릿해집니다. 거짓과 이기심은
양심을 가장하기도 하고 양심의 소리를 가리기도 합니다. 양심
이 우리를 고발할 때 외면하도록 주의를 다른 곳으로 향하게도
합니다. 호렙산의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에 귀기울이며 분별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사순의 여정을 우리 양심과 본성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 깨어있길 청해야겠습니
다. 십자가의 길에는 유혹과 격려가 형클어져 있어서 더욱 세
밀한 분별이 있어야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도 밤새 아버지 뜻
안에 거하셨습니다.

기도



주님 제게 많은 은총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에 빠져서 막상 주님을 잊는 어리
석음에 빠지 않게 하십시오. 제 마음과 양심에 속삭이시고 제 영혼에 일러주시
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제 영혼을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3월 23일(수) 19

누가복음 13:18-21

하나님 나라 찾기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
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눅 13:19)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라며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는 건 마치 학생들에게 ‘이거 시험에 꼭 나는 중요한 것이니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핵심체크 같습니다. 듣는 이들도 귀를 쫓긋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엄청난 시작과는 달리 별 것 아닌 듯한 두 문장으로 그 나라를 일러주십니다. 겨자씨와 누룩과 같답니다. 그리고는 시침을 똑 떼십니다. ‘어떠냐?’ 하고 물으시며 반응을 살피시는 것 같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귀를 기울인 것치고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치고는 좀 싱겁고 가우뚱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든 소재 겨자씨와 누룩은 당시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별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누룩 같은 것은 부정한 것이기에 유월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조금의 누룩도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했습니다. 겨자씨 또한 아무데서나 막 자라는 풀인지라 눈여겨볼 게 아닙니다. 아무도 겨자씨를 자기 정원에 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원에서 제거할 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겨자씨와 누룩을 소재로 삼고는 그것이 자라서 새가 깃들고 밀가루를 온통 부풀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별 것 아닌, 볼품없는 거절당한 것으로 출발합니다. 게다가 그 나라가 이미 성대하게 자라고 거기에 깃드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놓치고 있습니다.

흑인 신학자 제임스 콘은 수백 년의 노예살이, 린칭트리의 공포 가운데 흑인들이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유머를 간직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하고 자문하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의 살해와 차별, 강간과 폭력 등에서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검둥이’라며 차별하는 백인교회를 떠나, 흑인들끼리 모여 예배하고 그곳에서 한숨과 아픔이 섞인 신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해방하시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교회에서 흑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블루스’와 ‘영가’를 부르며 공동체를 형성했고, 충성과 화형의 공포에도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들’로 살아남았다고 기록합니다.

세상은 큰 업적과 성취로 역사가 진보 발전한다고 여기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로 전혀 눈에 띄지 않은 채 어느새 자라고 있습니다. 별일 아닌 것으로 채워져 다들 스쳐 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은밀히 이 일을 계속하십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로, 출근길에 마주하는 깨끗해져 있는 길과 버스, 지하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유지되는 일상들처럼 하나님과 그 나라의 백성들로 인하여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양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크게 자라 있어 거기에 갇들었으면서 그런 줄도 모른 채, 하나님의 비밀한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않을까요? 다른 것에 눈돌리고 있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기도



주님, 제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느라 이미 드러난 당신 나라를 놓치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너무 일상 같거나 유치해서 당신의 은총이 아니라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평범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뜨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3월 24일(목) 20

고린도후서 4:16-5:5

영원을 이미 누리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후 4:16)

가끔씩 찾아가 머물던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유명
한 강사를 불러 치르는 집회도 없고 그저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 온 이들이 머물 작은 방 몇 개와 예배실이 전부였습니다.
목회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오십여 년을 지켜온 산 중
턱 작은 기도원이었습니다.

노(老) 원장님은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기도하러 온
이를 위해 밥을 합니다. 이미 두어 시간을 고요히 무릎 꿇은 후
에 하는 일상입니다. 대부분의 반찬은 그분 손을 거칩니다. 기
름 바른 김도 연탄불에 직접 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씨름하는 이를 자신의 손으로 먹으려는 어미의 마음입니다. 방
문객이 그저 얻어먹기가 죄송스러워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니

손사래를 칩니다. 기도하고 설교준비하라며 그런 건 당신 일이라 잘라 말씀하십니다. 세 끼를 차리기 위해 씹없이 움직입니다. 저녁 서너 명 모여 기도회를 갖습니다. 젊은 목사에게 설교 하라시곤 그저 귀를 기울이십니다. 11시가 넘어 자리에 누우시면 어디가 불편하신지 한참이나 뒤척이며 끄끙이는 소리가 벽을 타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세 시쯤이면 어김없이 같은 하루가 이어집니다. 여쭙었습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드님이 오라시는데, 가서 쉬며 여생을 보내시지요. 이제껏 수고하셨는데요. 그분이 빙그레 웃으며 마른 등걸 같은 손을 흔들어 보이십니다. “이 낡디 낡은 걸 뭘 그리 아껴 보전하겠어요. 빨리 써서 닳아 치워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갈 것 아니겠어요?” 마치 아무 상관없는 남의 물건인 양 당신의 낡은 육신을 들어 말씀하시던 그 음성이 30여 년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육신이라는 장막에 매여 있지만 그 장막에 짓눌리지 않고 성령의 은총으로 덧입으며, 이 죽을 장막, 썩을 몸뚱이가 생명에 삼켜지길 바란다는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 노 원장님의 말씀으로 선명해졌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바울의 고백은 육신은 점점 낡아가나 영혼은 더욱 맑아져서, 쇠하여가는 몸에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낡은 몸마저 믿음으로 잘 써서 닳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장님에겐 생명의 유한함도, 몸을 연약케 하는 세월도 맥을 잃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주님 안에서 영원을 누리시고 계셨던 거지요.

영원은 과거와 미래와 지금 여기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에 누리는 것이라고 여길 수 없지요. 지금 여기 이 시간을 떠나 영원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며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영원을 소망하면서도 시간에 쫓기고 그 힘에 짓눌립니다. 영원이란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덧입어 사는 믿음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으로 약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후패할수록 소망은 굳건해집니다. 점점 땅의 것은 힘을 잃고 하늘의 것만이 분명해지고 가까워집니다.

기도



생명의 주님, 이 땅에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이나 무력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소망으로 점점 더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아가는 만큼 주님을 향한 마음은 더 분명해지고 확신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아멘.

3월 25일(금) 21

고린도후서 5:6-15

광자(狂者)의 고백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후 5:14-15a)

바울의 복음 사역은 유대교와 척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조차 교회를 박해했던 이력과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자처해 힐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안팎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사도직을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었고 복음의 열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으니 다른 그 무엇도 그를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붙잡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에게 목숨보다 소중했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높은 인격을 지닌 이를 성인(聖人)과 현인(賢人)이라 하지요. 반면 높은 뜻은 지녔으나 그 높은 뜻만큼 삶을 아

직 살아내지 못한 이를 광자(狂者)라 칭합니다. 미쳤다는 뜻보다는 높은 뜻에 자기를 던져 살아가고자 하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부딪히기도 하고 꺼내놓는 말과 실제 행실에 간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한 능력이나 인품을 갖추진 못했으나 그는 진리의 열정에 완전히 사로잡혔기에 주변에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광자는 모순의 사람입니다. 그를 몰아가는 지향의 강력한 힘을 스스로도 소화해 내지 못해서 힘겨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는 결코 위선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미 더 높은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이 그랬습니다. 백성이 안들을 줄 뻔히 알면서, 아니 거부할 뿐 아니라 핍박할 줄 알면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반항 없는 선포와 퍼포먼스를 해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도 십자군 전쟁 한가운데서 순교와 평화를 위해 이슬람의 적진을 걸었고 술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이고 복음에 미친 거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서는 복음에 사로잡힌 이의 열정을 통해 일하시지 싶습니다. 인간이 완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구원에 완전한 복음이 일꾼의 부족함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역사하는 거지요.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한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사로잡은 더 높은 부름에 이끌리는 것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믿음 안에서 든든합니다. 비록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이 가시처럼 자신을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런 인생인 줄 뻔히 아시면서 붙잡으신 하나님이니 더 깊이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속히 그분 앞에 서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그때는 얼굴을 마주하듯 완전을 이룰 것이니 어떻게 안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러니 죽음이 그에게 무슨 힘을 쓰겠어요?

복음이 우리를 맘껏 사용하시도록 빌어야겠습니다. 어느 때에야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겠습니까? 그저 이 모습 그대로 쓰셔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손에 잡힌 바가 무엇인지 맛보게 된다면 그보다 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순의 시간을 통해 주님은 십자가에 사로잡히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당신이 달리실 십자가를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가장 큰 도구로 삼으시도록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기도



주님, 당신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상식과 이해, 예의와 격식으로만 채워지지 않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생각과 한계를 넘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저희를 통해 드러나 저희도 놀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3월 26일(토) 22

시편 32편

기도의 과정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 32:1-2)

시편 32편은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기도의 한 과정’을 지나 온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 시작은 자신의 허물이었습니다. 그는 허물을 저지르고 나서 모르쇠하며 버텨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와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남에게 화살을 돌릴 수도 있고, 입 다물고 있으면 지나갈 것이니 잠시 소나기 피하듯 문제를 외면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삶은 험클어져 진이 빠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버티고 버티다 결국 그는 행복합니다. “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제껏 저를 돌렸던 핑계를 거둬들입니다.

이제껏 쓰았던 남탸의 화살을 부러뜨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제 허물입니다.” 한 마디 한 마디 신음처럼 고백하고 나니 그토록 짓눌렸던 무게가 안개 걷히듯 사라집니다. 짓눌렸던 고통에서 평안과 자유로 이리 쉽게 건널 수 있다는 게 겪고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힘들게 감추고 버틴 자신이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는 한없는 죄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서 이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맛보는 순간, 그는 놀랍게도 죄를 통해 주님을 더 온전히 만나고 체험하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는 것이 끄덕여지고, 오 복된 죄여(Felix Culpa)라는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터져 나왔는지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서 토해졌는데 그분과 더 가까워지다니! 이 모순이 그를 놀라게 합니다.

이제 시인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기도는 그분 앞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어놓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가장 깊은 실천이며 내면 가장 깊은 곳,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곳을 그분 앞에 내어놓는 용기의 실행입니다. 기도는 말에 속하지 않는 의지의 실천입니다. 장래 계획도 의논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깊은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은 이를 가장 기다리십니다. 내면의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자유의 날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 2막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인의 내면의 토로를 들으시고 용서하신 후 삶의 장에서 대화하시고 권면하십니다. “내가 어련히 너를 잘 가르치며 이끌지 않겠니?” “그러니 네 고집은, 굴레를 씌우고 재갈을 물리길 기다리는 노새의 어리석음과 뭐가 다르니?”라고 미소짓습니다. 기도는 이제 그분과 동행하는 일상의 여정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일상을 그분의 신비로 채워주십니다.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 이들은 한결같이 거기에 두 개의 근원적 정서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두려움과 사랑입니다. 허물과 연약함을 들킬까 감추려는 두려움은 삶을 곤고케 하고 형클어뜨립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몰아가다 결국 자기 혼돈과 파괴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내어놓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어떤 근원적 정서가 우리를 지배합니까? 믿는 이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사랑에 자기를 내어맡기며 이 여정을 계속합니다.

기도



주님, 이 믿음의 길에서 당신을 맞들이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여 허물에 빠졌더라도 그걸 저 혼자 지려고 감추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 앞에 기어서라도 가게 하시고 그 순간 제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3월 27일(주일) 사순 넷째 주일

누가복음 15:1-3, 11b-32

잔치가 진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눅 15:2, 32)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을 찾고 기뻐하는 주인의 비유로 가득합니다. 매우 귀에 익은 비유들이지만 비유가 주는 깨우침은 여전히 새롭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자 그들을 멀리하는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해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위엄 있게 전해지고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존중을 표하는 고상한 자리를 원하지만, 용서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된 이들이 떠들썩대는 나눔의 식사자리입니다.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 저들은 이런 장면이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고 기만하

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수군거림이 잔치의 기쁨을 흐트리려 하자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 잃었던 한 드라크마,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어 일러 주십니다. 세 비유의 내용은 모두 잃었던 것을 찾은 것이고, 주인은 기쁨에 못이겨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기쁨에 못이겨 주인이 잔치를 열었으니 기쁨을 누리는 것이 주인과 함께한 이들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로 이뤄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야말로 복음의 능력이자 실재였지요. 회개한 죄인들이 나누는 기쁨과 감격의 자리—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자 교회의 모습이지요—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랑의 잔치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재산을 축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이 돌아온 기쁨을 잔치로 만끽하려 합니다. 그러니 첫째 아들이 그 잔치를 거절하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을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기쁨을 첫째가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둘째 아들이 축낸 재산에만 눈길을 주고 주인이 본 손해를 제 손해처럼 여겼나 봅니다. 물질 중심의 세상에서 손익계산에 익숙한 눈길이지요. 그러니 첫째는 아버지께 배신감마저 느꼈지요. 은혜를 잊고 알량한 수고의 계

산서를 들이밀고픈 고약한 심성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순 기간의 주일을 통해 우리는 이 시기를 걸어갈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이 여정은 심각하게 인상쓰며 십자가를 향하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케 하신 은총을 감사하며 주님이 베푸신 기쁨의 잔치에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가없는 품을 경험하여 참된 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라는 초대장이지요. 그래서 첫 과정은 회개이며 돌이킴이나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사랑에 젖어드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엄격한 의무와 책임감의 종교에 익숙한 이들은 이 기쁨과 감사가 쉬 받아들여지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바리새인들이 겪은 위험은 오늘도 상존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이들과 기뻐하는 것, 함께 슬퍼하는 이들과 슬퍼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인 공화이며 우리가 닮길 힘써야 할 은총의 덕목입니다.

기도



주님, 이 여정에서도 당신이 베푸시는 기쁨과 감사를 오롯이 누리게 하십시오. 타인을 판단하다가 그가 용서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흉악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먼저 제가 그렇게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 사람을 찾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사53:2)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땅의 혼탁에 거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내려보시며 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찾습니다. 성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땅이며 이 땅의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뜻을 몸으로 살 아내는 인간! 땅에 거하면서도 거짓에 갇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지식은 사랑

과 진리가 아닌 오직 자기의 실리적인 목적이나 이기심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각자의 이익만을 위한 지식은 끝내 서로를 대립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다툼만 일으킵니다. 결국 이 땅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먹고 먹히는 것만이 유일한 법칙이요 진리인 양 여겨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선언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선언이며, 자신만을 이 모든 판단과 진리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지요. 자기 욕망이 신이 되고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이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전혀 꺼려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상대를 해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지각(知覺)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하나님 당신 없이는 안되겠습니다. 당신 없이는 제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생의 뿌리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무성한 가지와 열매를 얻고자 이리저리 바쁜 사람이 아니라 근원이신 주님을 찾으며 그분과 깊은 관계와 연합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는 인생은 도로(徒勞)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그 방향이 목적지와는 정반대 방향인 경우도 인생에는 허다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으면서도 선을 행하는 이, 하나님을 찾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성서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은 엉뚱한 것을 찾고 헤매지만 그래도 저는 찾고 있지 않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고약한 성정은 생명을 일깨우는 말씀에도 가슴을 치는 권면에도 늘 나 자신을 제외하면서 나 아닌 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며 지나칩니다. 생명을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를 떠올리지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들으며 탄식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자신을 향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무릎 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음을 발견합니다.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신 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만나는 길입니다. 그러니 어찌 어거스틴처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늦게서야 당신을 사랑했나이다!

기도



주님, 당신 앞에 머물 때 주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오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찾아가는 길음의 수고를 불평하기보다 한없이 기다리신 당신의 은총을 상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찾은 기쁨에 젖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3월 29일(화) 24

레위기 25:1-19

약속의 땅, 모험의 땅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레 25:18)

조선시대 관리들의 글을 보면 365일이 다 일하는 날입니다. 노비들 또한 365일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병을 얻거나 급한 사정이 생기면 휴가를 청하거나 주인의 배려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지요. 주 5일제가 거의 정착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쉼을 본받아 일주일에 하루 안식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마당에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 명합니다. 6년을 일한 후 7년째는 안식년으로 지켜 땅을 쉬게 하라합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렇게 일곱 번(7*7)을 지난 다음 해 50년은 희년으로 선포하여 모든 것이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

라고 합니다. 팔렸던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어쩔 수 없이 떠났던 이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라는 거지요. 회복을 우선으로 여기는 명령이며, 다시 출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근본적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단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안식년조차 잘 지켜지지 않았을 정도이니 희년은 오죽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사장(死藏)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명이 주어진 가나안 정착은 하나님 약속의 실현이며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모험으로 이끕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되심과 자신들은 택한 백성임을 보여야합니다. 이를 위해 신앙적 모험이 기다리고, 상상해본 적 없는 실천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안식년이나 희년의 준수는 일반적 사고로는 행할 수 없지요. 마치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처럼 전복적 사고가 아니고는 감히 실행해 볼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내내 이것을 연습했습니다. 광야는 한 방울의 물, 한 조각의 먹거리조차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40년을 연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이동하는 연습은 철저한 순종의 훈련이었지요. 컨디션이 좋다고 건

고 곤하다고 쓴 것이 아니라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동하고 멈추면 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것이었지요. 광야에서는 다른 길이 없어서 마지못해 그 훈련이 이뤄졌던 걸까요? 가나안에서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길들과 유혹과 우상 등 선택이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순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연습하고 있나요? 혹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감추고 사장(死藏)시킨 말씀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런 방법이 통하겠느냐며 뒤로 밀쳐놓은 말씀을 되찾아 쌓인 먼지를 털며 다시금 모험의 여정에 나서야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지경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손해 보길 기꺼이 연습했지요. 내가 좀 손해를 보아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가장 큰 손해를 입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되 고자 한 거지요. 제가 뵈 어느 선교사님은 현지에서 늘 같은 값을 내고도 좋지 않은 사과만을 골랐습니다.

기도



주님, 당신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한 것은 아닌지요? 죄송합니다. 이 여정 중에 뒤로 밀쳤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더 놀라운 주님을 뵈기를 원합니다. 아멘.

3월 30일(수) 25

누가복음 9:10-17

기적을 요구하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눅 9:13a)

예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며 돌아온 제자들은 무척 고양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요한, 위대한 예언자들이 되살아났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습니다. 종일 따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해질 무렵이 되자 제자들은 선생님께 “이제 사람들을 흠여지게 하여 각자가 쉼 곳과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병을 치유하는 정도가 자신들의 몫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과 치유에서 더 나아가 함께 식사하는 것, 밥상공동체까지 우리 몫으로 여기자고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생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 빈들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느냐는 거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는 ‘능력자’ ‘해결사’가 되라는 요구로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결사요 능력자가 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돌로 떡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자, 문제의 해결사가 되라는 사탄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을 요청하게 합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정한 범주, 이정도까지가 우리 사역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길 바라십니다. 사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식적으로 정해놓은 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당황한 제자들 앞에 누군가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일까요? 보잘 것 없는 것이 드러졌습니다. 주님은 더 찾지 않으시고 그것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누게 했습니다. 성서는 그 결과 다들 배부르게 먹고도 많은 것이 남았다고 기록합니다. 도대체 그 기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티벳이라는 고산지대를 여행하다 보면 농한기를 맞아 성지를 순례하는 이들을 만납니다.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그곳에는

성지라고 해도 쉼 숙소나 식당이 없습니다. 며칠씩 걷는 그들의 배낭에는 여정 동안 먹을 빵이 있습니다. 어딜 가려면 최소한의 제 몫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정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서슴없이 빵을 함께 먹자며 초대하고 나눕니다. 성지를 향한 겸허함과 거룩한 갈망이 낳은 마음일까요?

아주 작은 것을 받으시고 드리신 감사의 기도는 수많은 이들의 밥상공동체가 되었고 모두들 풍성함을 누리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응답한 믿음이 새로운 믿음을 낳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상식이나 일상의 한계에 안을 자신을 가두지 말아야지요.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나 스스로 정한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체험해야지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싶어 자신들을 의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먹을 것이 풍성했던 기적이었고 서로의 믿음으로 고무되는 희망의 기적이었습니다.

기도



예수님, 당신의 말씀 앞에서 저도 현실과 형편만 나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해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답하는 용기를 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으로 뛰어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장중에 있음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
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이라 (사 43:1b)

이사야 40장부터 제 2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유대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낯선 이국에 몸붙여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몸붙여 객살이하던 그들, 낯선 곳으로 끌려가 흩어져 있던 그들을 불러모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당신이 친히 지으셨으며 선택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지킬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이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요. 이 작은 민족 이스

라엘을 위해 강대한 제국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주고
서라도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 뿔뿔이 흩어졌든
지 끝내 데리고 올 것이라 선언합니다.

그런데 앞의 42장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우상숭배에 분노하시고, 그들이 노략질
을 당하고 불길에 휩싸이며 올무에 걸리도록 내버려두십니다.
보아도 보질 못하는 눈먼 인생이라고, 청맹과니라고,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따르지 못하고 배역(背逆)의 길을 걷는다며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불같이 분노하는 분, 남김
없이 불태워서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고 속삭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인가요? 그
렇게 돌아오게 하실 양이면 차라리 흠지나 마시지 기껏 온갖
고생을 겪도록 한 후에야 불러모으는 건 고약한 하나님의 성
정인가요? 이렇게 따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는 이도 있
겠지요.

분명한 것은, 삶은 평범한 일상도 있지만 버겁고 힘겨운 사
건, 특히나 고통과 아픔의 흔적 깊은 사건들이 갈마들며 이루
어집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깊은 흔적을 남기는 사건을
겪으면서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눈매를 낳고, 흔들리지 않을
깊은 뿌리를 내리며, 보이는 것 너머의 비전을 품습니다. 이전

과는 다른 삶의 결이 생겨납니다. 게다가 그 비전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과 연대하게 하며 함께 건디는 힘을 나누게 하지요. 조급한 시간에 속아 원망하며 아등바등하지 않고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가 고난을 겪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고난이 그를 새롭게 탄생시킨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러한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증인(證人)으로 삼으십니다. “내가 깨쳐서 나를 믿고 내가 바로 그분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43:10)”이라고 알려줍니다. 증인은 직접 보고 들은 것, 온몸으로 겪은 것을 말할 때 진실하고 힘이 있습니다. 참된 증언은 입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들어 하는 거지요. 주님은 이 물과 불을 지나는 여정을 통해 우리가 당신의 증언자가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분도 우리와 함께 물과 불을 지나시지요. 우리를 감싸고 함께 건너십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가 지금 이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도



주님, 제가 경험하고 지나는 삶의 사건들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그것이 저를 새롭게 눈뜨게 하며 저를 증언자로 세우시려는 당신의 손길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흑여 물과 불을 건널 때 저 혼자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일러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4월 1일(금) 27

빌립보서 2:25-3:1

믿음의 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
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
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빌 2:25b)

에바브로디도는 사도가 감옥에 갇히자 빌립보교회가 파견한
일꾼이었습니다. 복음전파에 조금의 걸림돌도 되길 원치 않았던
바울이기에 천막 짓는 일로 자비량 사역을 했지만 빌립보교회의
사랑만큼은 감사로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도를 존중한 빌립보
교회는 그가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자신
들의 사랑과 존중을 표했습니다. 빌립보 서신에는 이렇게 교회
와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믿음의 우애가 배경으로 울리
고 있습니다. 그러니 옥살이 중에도 편지는 기쁨으로 충만합니
다. 본문은 그렇게 사도를 돕다가 중병을 얻은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자 그를 빌립보교회로 돌려보내며 쓴 내용입니다.

먼저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변호합니다. 그의 사역은 옥에 갇힌 바울을 돕는 것이니 아직 그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중도에 병들었다는 소식에 빌립보교회도 안타까워하고 도움 받던 사도 또한 편치 않았겠지요. 에바브로디도 본인은 또 오죽했겠어요. 교회를 대표해 사도를 돕고자 왔건만 걱정만 끼친 건 아닌가 싶었겠지요. 다행히 호전되고 기운을 차리자 사도는 하나님의 자비가 교회와 사도, 에바브로디도 모두에게 임하였음을 감사하고 그를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존중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사도의 필요를 위해 목숨까지 걸며 힘쓴 귀한 일꾼이었노라는 증언은 그가 얼마나 수고하였고 바울을 감격케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에바브로디도의 수고를 기억하며 믿음의 우애, 믿음의 벗이 어떤 사람인지 증언합니다. 사도는 그를 형제이며 동역자이자 동료 전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내게 주고자 했던 모든 사랑을 남김없이 보여준 사람이며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고 돌보아준 봉사자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를 지칭하는 수식어를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가족으로서 형제요, 많은 비방과 박해를 무릅쓰며 함께 복음을 위해 싸우는 중에 등을 내 맡길 수 있는 전우이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대신할 수 있는 동지이자 동역자이고 빌립보교회가 사도에게 주고 싶은

모든 사랑과 존중을 담지한 사람이자, 옥살이 중인 사도의 입과 손과 발이 되어준 바울 그 자신이자 대리인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말하는 그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역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귀중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수고하며 맺는 믿음의 우애입니다. 주님 위해 일할 일꾼이야 필요하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문제 많은 우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또 우리보다 더 훌륭한 능력과 인격을 지닌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애쓰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하나되며 또 함께하는 이들이 서로 품어주며 위로하는 감격을 누리라는 배려가 아닐까요? 우리를 넉넉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벗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기도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 참된 믿음의 벗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제가 당신을 따르는 누군가를 넉넉히 수용하고 격려하는 믿음이 벗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수고가 아니라 늘 놀라운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4월 2일(토) 28

요한복음 11:45-57

희생양 만들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요11:50)

오늘 본문은 11장 앞부분,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배경으로 삼습니다. 복음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얼른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뉴스(news)를 전했고 곧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이 분명하기에 믿음으로 고양되고 널리 전해져야 할텐데 오히려 그들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대책마련에 시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세상의 눈, 자기 유익의 눈에는 괜히 분란을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은 무척 곤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보다 유대교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다가와 수많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데 혹여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잘못 판단해 따르기라도 한다면 소요가 일어날 테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로마군대가 개입하면 하나님의 성전도 유대 민족도 위기를 맞게 될 거라는 합리적인 분석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방법은 하나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빨리 처리하고 다들 이해할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며 고뇌에 가득한 결단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설득은 예루살렘의 안녕에 무척이나 적절해 보입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라면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뜻을 찾아야 합니다. 소중한 전통과 역사도 잘 간직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여기에 깨어 있기보다는 과거의 전통과 역사를 유지하는 것에 더 힘을 쏟습니다. 그러니 사태를 분석하기 바쁘고 예상되는 위기를 어떻게 피할지 좋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났습니다. 민족과 종교의 안녕이라는 대의를 위해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희생양 만들기입니다. 위기를 넘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손가락질할 대상을 가운데 세우고 모두가 그에게 잘못을 뒤집어

썩우고 돌을 던지면서 나머지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의식을 공유합니다. 그런 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 안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며, 동시에 권력을 가진 자들과 아무 것도 모르며 덩달아 돌을 던지는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에 의한 희생양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이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희생양의 자리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희생양을 만들고 우리 허물을 그에 덧씌우는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통해 그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게 해달라고 청해야겠습니다.

기도



아버지의 영광 가득한 일을 행하시고도 버림받는 희생양으로 내몰리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희를 깨어 있게 하셔서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주십시오. 아멘.

4월 3일(주일) 사순 다섯째 주일

요한복음 12:1-8

사랑에 끌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요 12:7)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그들 남매가 기쁨으로 여는 잔치에 참여합니다. 당신이 저야 할 십자가의 무게는 짐짓 한쪽으로 밀어놓고 저들과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런 도중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강렬한 향이 온 방을 채웠을 터이니 모두의 눈길이 이 여인의 생각지 못한 행동과 그 행동을 아무 말없이 받아들이는 주님께 향했을 것입니다. 떠들썩함을 순식간에 잠재운 고요!

유대 풍속으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최대의 환대요 존중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연회 도중에 머리가 아닌 발에 기름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

니다. 마리아는 존중과 환대를 넘어서 그분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자기겸허를 보여줍니다. 감히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을 -그러려면 더 위에 있어야 할 테니-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너무도 귀한 분 앞에 엎드린 낮은 자의 모습일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되 드리는 자신은 조금도 드러나고 싶지 않고 오직 받으시는 분만 드러나길 원하는 섬김과 헌신일까요? 사람들은 모두 여인을 바라보지만 이 여인에게는 오직 그분만 계십니다.

그런데 정적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을 판 사람 가룟 유다의 한마디였지요. 그 향유를 팔면 삼백 데나리온-노동자의 일년 품삯-은 될 터인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을 어찌 그리 낭비하나는 불통거림이었습니다. 성서는 그가 돈궤를 맡은 도둑이기에 그랬다고 하지만 말하는 그 자리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합리적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도 하실 법한 말을 대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늘 빈자(貧者)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참된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는 오롯한 사랑으로 가득한 행위가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랑의 행위는 일어나는 사건을 온전하게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으로 승화되어 거룩해집니다. 사랑에 휩싸여 행하는데 거기에 감히 계산하려는 생각이 끼어들 수 있을까요? 사랑에 빠져 저도 모르게 한 행

위가 온전한 헌신을 이루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에, 드린 이는 드린 줄도 모르고 여전히 부족함에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참으로 배워야 할 것은 ‘사랑에 사로잡혀 부지불식중에 행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리아처럼 사랑이 몰고가는 힘에 끌려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어거스틴의 권고는 이 장면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사랑에 흠뻑 젖으시는 거구요. 그래서 주님은 가만히 두라고 하십니다. ‘나는 지금 이 여인의 행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고 이 여인의 행위는 이 십자가 여정의 소중한 한 부분이구나, 그러니 유다 네가 판단을 멈추었으면 싶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도



주님, 제 행위가 당신 사랑에 사로잡혀 그 사랑에 감격하는 행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당신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길 청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4월 4일(월) 29

시편 20편

임금을 위한 기도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 20:9)

시편 20편과 21편은 짝을 이룹니다. 20편은 전장으로 나아가는 임금을 위해 하나님께 승리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고, 21편은 임금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는 찬양입니다. 따라서 20편에 반복되는 ‘너’는 임금으로 바뀌어 읽어야 뜻이 통합니다. 사실 오늘과 같은 시대에 봉건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임금을 위한 기도는 생경스럽지요. 하지만 진실을 담고 있는 찬미와 시는 시대를 넘어서 거듭 새롭게 해석되며 영감을 줍니다. 마치 남녀의 사랑노래이며 결혼식 축가로 추측되는 아가서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확장되면서, 그분을 사랑한 신앙의 신비가들에게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사랑 노래로 변한 것과 같습니다. 동양에서 오래전부터 읊조려졌던 시경

이 본래는 민요나 남녀의 사랑가였지만 후에 유교사회에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해석되며 변함없는 충성을 담은 것으로 지평이 넓어졌고 더 넓은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순절에 이 시편을 묵상하는 것은 이 시기를 지나 는 동안 우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요. 그러다보니 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으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필요와 기대가 기도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사순의 시간, 십자가를 향해 걸으시는 주님을 위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결코 아니지요. 오병이어를 내어놓던 이처럼 부족함을 부끄러워 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기까지 가만히 기다리게 하지만, 주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작으나마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행하게 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앞둔 여인 에티힐레숨은 ‘지금온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야 한다’라며 가스실로 밀어넣는 독일인을 향한 증오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평강을 나누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그 젊은 여인이 죽음의 땅에서 미소로 다가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며 나누어준 평화를 잊을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의 임금이신 주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야 자신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도
구임을 발견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의 실재를 경험합니다.

한편 임금을 위한 기도는 임금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기도입니
다. 고대에 새로운 임금의 즉위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
다. 상징적으로 먼저 연호가 바뀝니다. 제도와 지향하는 바가 새
로워집니다.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는 주님의 통
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힘과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 방식에 익
숙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통치방식인 사랑과 섬김이
우리 삶의 정체성이 되길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주님 나라의
통치방식이니 우리 삶도 용서와 관용으로 이뤄지길 기도하는 거
지요. 주님의 백성이라 고백하면서 사랑과 섬김, 용서와 관용으
로 우리 삶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예수 우리 왕’이라는 고백과 찬
양은 울림없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임금을 위한 기도는 우
리 마음과 영혼에 그분의 다스림이 새겨지길 청하는 것입니다.

기도



주님, 감히 저희가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여정을 걸으시는 당신
걸을 벗어나지 않게 도우소서. 옛 생각과 고집이 떨어지고 주님의 뜻과 걸음으
로 저희가 물들어 당신 쓰기기에 좋은 도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4월 5일(화) 30

요한1서 2:18-28

길 잃은 시대의 ‘길’,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일 2:25)

교회가 혼돈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부르짖음이 있었지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없는 교회는 아니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통일된 신학이나, 교회를 바로 세울 건 강한 전통이 아직 없었습니다. 교회는 어린아이 같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형편들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 또한 많은 혼돈과 흔들림이 있었음을 사도들의 편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서신을 받은 신앙 공동체 또한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무장하고는 공동체를 흔드는 거짓 세력이 있었고,

아마도 어떤 이들은 공동체를 떠나 거짓된 가르침을 쫓기도 했습니다. 아직 성숙치 못한 공동체의 식구들, 든든히 서지 못한 지체들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의 안타까움과 권면이 서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그들 공동체가 간직한 신앙이 참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은 성령을 통하여 확증된 것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러나 거짓에 빠진 이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부인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식구들은 처음 들은 가르침과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이 주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임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색다르고 특별한 것에 휘둘리지 말고 처음 가르침에 머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거짓의 유혹과 도전으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또 그로 인해 복음의 정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다시금 발견하고 더 굳게 지켜올 수도 있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믿는 바를 다시금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신앙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복음(福音), 기쁜 소식을 낳은 소식으로 치부하며 대체할 수 있는 지식들을 내세웁니다. 과학의 이론으로 우주를 해설하고 심리학적 분석으로 인간을 설명하면서 이런 학문과 지식으로 인간이

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설파합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터하지 않는 지식은 결국 인간의 실리적 목적만을 위해 쓰이다 서로 대립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맙니다. 인간의 이성이 문명과 인간의 삶을 완성할 것이라 자부하며 들떴던 20세기가 열리면서 오히려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인간은 실존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최근에는 AI와 과학의 진보로 인간이 문명을 완전케할 것이고 신을 대신할 것이라고 흥분했지요. 그러나 바이러스로 혼란을 겪으면서 인간문명이 얼마나 연약한 지반 위에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사순의 시간을 통해 우리도 주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며 이 길이 그저 형식이나 전통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능력임을 확증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과학문명의 이기를 누리기는 하지만 도리어 길을 잃은 이들에게 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습니다.

기도



다양한 주의와 주장이 넘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근원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흥분되어 달리다가 방향을 상실한 이들에게 길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4월 6일(수) 31

누가복음 18:31-34

알아듣지 못함은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눅 18:31)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거듭 예고하고 그럼에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수난 예고는 세 번째 예고인데 여전히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그 이유가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의 뜻은 감추어져 있을까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걸까요?

신앙생활 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믿고 맡기는 성도는 조금씩 말씀이 그를 이루어 가는 것을 체험합니다.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 감히 거룩

하고 영원한 말씀을 이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육신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가능하다면 오직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이루어가시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라고 하시는 것은 예언된 말씀이 친히 당신을 이끌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 말씀에 당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오롯이 내맡기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일부분만을 택하곤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제련하고자 불과 물로 이끌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에고의 고약한 습성이기도 하지요. 본문 바로 앞에서 주님을 찾아온 젊은 부자가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가진 것을 팔아가난한 이에게 주고 당신을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서는 고개를 떨군 것과 같습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몸으로 이루기는 힘겨운 것이라 스스로 결론지은 것이겠지요.

예언서와 예수께서 거듭 메시아의 고난을 말했지만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였지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일부러 외면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끝내 성

령에 사로잡히고 나서야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알아채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귀로 듣는다고 해서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그릇이 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참된 믿음은 나를 편안하게 하는 말씀을 택하던 습(習)에서 벗어나 말씀이 나를 당황케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일어나는 불편함을 거절하고 말씀 앞에 “예” 하는 것, 이것이 변형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의 예를 기뻐하시면서 손수 우리를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이 여정 동안 혹여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부지불식간에 놓치거나 외면한 것은 없나 살펴야겠습니다.

기도



주님, 이 여정 동안 제게 편한 말만을 선택하여 듣는 고약한 구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를 택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 그 말씀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으로 “예”라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십자가, 의탁의 장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
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시 31:15)

시편 31편 5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에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

예수께서 사용하신 ‘부탁’이라는 말은 맡긴다는 뜻의 상업 용어입니다. 귀중한 물건을 가진 사람이 이를 안전하게 보전하고자 신뢰할 만한 곳—은행과 같은—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는 때가 되면 그동안 맡겼던 것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것을 확신하고 맡깁니다. ‘잘 맡아주십시오. 나중에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바가 없습니다. 온전한 신뢰는 굳센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의뢰하여 맡긴 후 안전하게 돌려받기까지 남겨진 땅의 시간 동안 그 신뢰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힘과 부를 움켜쥐는 것으로 자기 안전과 영광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바를 확신하는 신앙인은 자신들의 근원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신앙인의 신뢰는 자신들의 우상이 곧 사라질 포말이요 환영(幻影)임을 말없이 웅변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그들의 신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땅에서 그들을 제거하는 것만이 거짓이 자기를 지탱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믿는 이들을 환난에 빠뜨리며 질곡으로 몰아넣습니다.

시인은 육체의 고통을 겪으며 아픔 가운데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원수들의 모욕에서 시작된 곤고함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웃들의 혐오거리가 되고 결국 그를 알아주던 가까운 사람들마저 그를 외면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끝내 그는 없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는 이 땅에 거하는 시간 속에서 점점 무(無)가 되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거짓의 힘 앞에서 시인은 자신을 설득하듯 기도합니다. 설사 거짓의 힘이 이 땅을 지배하며 시인을 짓누르고 있지만 “그러하

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시인은 자신의 운명이 이 고통 가운데 산화되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회복될 것을 확신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외치심으로 십자가가 마지막 절망의 자리, 끝장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거기 신뢰의 자리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는 가장 소중한 자리임을 일러주십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 세상의 버림과 가까운 제자들의 배반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겪으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증명하려는 거짓의 온갖 노력이었지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희망하고 신뢰함으로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끝끝내 함께하시는 자리임을 드러내십니다.

기도



언제나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제게 허락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유혹과 거짓이 주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품게 할 때 ‘내 영혼은 주님께 의탁되었습니다’ 라며 고백하게 하셔서 현실에 속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소서. 아멘.

4월 8일(금) 33

히브리서 2:10-18

사람이 되신 것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
실 수 있느니라 (히 2:18)

우리는 강한 설득과 확신에 의해 나아갈 힘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보다 더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위로를 나누어주고 같이 아파하는 이들을 통해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때로 눈먼 이가 보는 이를 위로한다는 역설을 종종 마주하지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어려운 처지에 함께있는 것만으로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지닙니다.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 머물며 우리 연약함을 친히 겪어 고난 가운데 우리 구주가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성서가 보여주는 신적 위용과 놀라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지상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셔서 우리의 삶이 거

룩으로 나아가는 통로임을 밝히셨습니다. 주어진 삶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다. 숯불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죽음과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고난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접적인 길이며 거룩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성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완전은 윤리적인 완벽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닮음, 거룩해짐의 뜻으로 하나님께만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겪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른 거지요. 그랬기에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 안에 채우길 원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자신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은총을 덧입고 있음을 깨달은 거지요.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난제들이 극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가 많이들 해결되었다고 외치지만 그 삶의 끝에 잇닿아 있는 죽음 또한 분명한 실재인데 다들 직면하길 꺼립니다. 무화(無化), 의미없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토록 추구하고 붙잡았던 것들이 신기루처럼 빠져나갈까 두려운 거지요. 그러니 뻔한 사실을 마치 없는 양 외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

음이 의미없이 사라지게 하는 악마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통로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어 죽음이 가진 힘을 벗겨냈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이들에게 죽음이 곧 삶을 뛰어넘어 영원에 이르는 길로 주어졌습니다. 힘을 잃은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박해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순교를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루라도 빨리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육신을 하루빨리 벗어버리는 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남겨진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빌 1:23-24). 이미 죽음을 넘어섰는데 조금 빠르고 느린 게 무슨 대수였겠습니까?

이 사순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함을 먼저 겪으신 분의 위로와 은총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



주님, 저희가 겪는 이 인생을 당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혹여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기보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4월 9일(토) 34

누가복음 22:1-13

서로 다른 유월절 준비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
더라 (눅 22:1-2)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입니다. 노예살이하던 백성들이 해방되어 약속의 땅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며, 그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들 이 새로운 시작을 감사하며 되새기기 위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에게야 이 절기가 얼마나 소중한걸까요? 그만큼 마음을 다해 집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보다 이 시간이 소요나 혼돈으로 변할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요소인 예수를 제거하기로 계획하고 방도를 찾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사탄은 유다의 마음을 차지하여 하나님을 위해, 유월절의 안 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넘기게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도와 수고가 응답되었다고 여겼겠지요. 그러니 유다도 지도자들도 유월절이 다가올수록 자신들의 계획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 유월절이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신 성찬례의 본을 보이고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당신 사역의 정수(精髓), 사랑을 밝히십니다. 십자가에 닿기 전 남겨진 이 짧은 유한한 시간 가운데 주님은 일련의 모범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제자들에게 오롯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더욱 절절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시간을 맞고 보내지만 서로 다릅니다. 누군가는 감춰진 음모 속에서 의도를 가지고 지켜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으로 깨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유월절 가까이 갈수록 제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주님을 잊어가고 진리

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유월절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진리와 하나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점점 당신을 비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고 한 사람은 점점 더 자기 생각에만 매몰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스승이 베푸시는 사랑에 흠뻑 젖어들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맞이 하듯 우리 또한 사순의 여정을 맞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을 되새기는 시간을 맞이하는 중 이라면 우리 또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건을 되새기고 있지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이는 그리스도의 걸음을 본받으며 진리에 이끌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이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 엉뚱한 것에 이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순의 시간을 매년 지나는 행사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



유월절 남은 시간을 제자들과 지내며 전심을 다해 가장 귀한 것을 건네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사순의 남은 시간을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제 마음을 채워지게 하시고 제 어리석은 의도는 점차 줄어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4월 10일(주일) 종려주일, 고난주간

누가복음 19:28-40

서로 다른 퍼포먼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겹옷을 길에 퍼더라
(눅 19:35-36)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 즈음에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처럼 기대에 가득 차 있었다고 누가복음은 말합니다(눅 19:11-27). 제국의 폭력에 억눌리고 권력에 짓눌렸던 이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기다립니다. 정말 때가 무르익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흥분된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왕위를 받으려 간 한 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반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인은 끝내 왕위를 받아 돌아왔고 종들이 맡은 바에 얼마나 신실하였는지 정산하여 상 줄 이와 책망할 이를 판단하신 후 당신의 왕위를 반대한 자들

을 처벌하였다고 이야기를 냅니다. 이야기 속에는 사람들의 희망이 진짜로 실현될 거라는 암시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암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상징적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는 백성들의 환호 가운데 입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며, 찬미받으소서. 하늘에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 성전에 입장하는 왕과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시편 118편의 찬미가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환호를 제지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신 분이 이 모든 환호와 영광을 몸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불편한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환호하는 저들을 꾸짖으라고 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며 아랑곳 않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보이는 이 장면은 이전에 주님께서 보이신 것,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시고도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당신을 낮추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두 퍼포먼스의 충돌입니다. 왕의 입성을 향한 군중의 환호와 어린 나귀 새끼는 매우 다른 퍼포먼스입니다. 무리들의 환호는 군중들의 작품이고 그들이 실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퍼포먼스는 사람이 탄 적 없는 어린 나귀였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당신의 퍼포먼스가 옳다 하거나 저들의 퍼포먼스를 그르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두 퍼포먼스

가 한 자리에서 상연중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묘하게 두 퍼포먼스를 당신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향의하는 이들의 입을 다물게 할 뿐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이 두 퍼포먼스를 하나로 묶어내는 그분의 뜻을 새겨봅니다.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당장 실현되길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갈망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간격은 머지않아 환호의 감격과 찬미가 미쳐 식기도 전에 분노 가득한 거절과 저주받은 십자가의 길로 드러나고 맙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묵묵히 이 모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그분이 우리 왕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왕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기도



주님, 저희가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군중들처럼 쉬 뜨거워졌다 곧 냉소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린 나귀에 오르신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일러주시고 우리도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4월 11일(월) 35

이사야 42:1-9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
라(사 42:1)

수난 주간 첫날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은 정점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파라노마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운 종을 통해 하나님은 기쁨으로 온 세상에 공의를 펼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광대한 선언에 이어지는 종의 움직임은 아주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상한 갈대에 뭔 의미가 있다고, 기름이 다한 등불에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그토록 연약한 것들을 감싸며 낙담치 않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거대한 파노라마를 드러내는 도구들은 너무도 미미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 구원의 공의

를 드러내실 분, 먼 땅끝의 민족과 섬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분의 이미지는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통로는 십자가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을 담보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가나안 정복을 통해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었습니다. 만군(萬軍)의 여호와라는 노도의 용사처럼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기드온의 300 용사만으로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멸절시키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힘이 악의 세력을 넘어뜨리고 신음하는 이들을 일으키시는 영웅적 방식이었지요. 마치 헐리우드 영웅이 거대한 악을 물리치는 이야기 같습니다. 박진감 넘치고 손에 땀을 쥐게 하지만 결국 힘으로 이겨내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구원의 이야기, 어쩌면 정반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낼 종은 자기를 낮추며 힘없는 이들 가운데 머무시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가 꺾이거나 용기를 잃는 일 없이 마침내 공의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이방에까지 그 빛을 드러낼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확신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종을 통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갇힌 자들이 구속함을 얻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당

신이 받으실 영광을 우상에 결코 넘겨주는 바 없이 완전하게 취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시작과 끝은 영광 가득하고 하나님의 확신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과정은 연약하고 궁상맞기까지 합니다.

민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의 파노라마가 모욕과 수치의 나무 십자가에서 오롯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여정입니다. 이 역설이 진리로 드러나는 것을 맛보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바로 자신임을 발견하며 감격하게 됩니다. 영웅의 도래가 아닌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바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며 은총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겨 읽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의 거대한 시작과 그 한가운데를 채우는 한없이 여린 공허, 그리고 영원한 완성을 받들어 읽으십시오. 사순의 여정은 우리가 바로 그 공허를 기다리는 이들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주님, 십자가를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공허이 바로 저를 향한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의 섭리 안에 저 같은 인생이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60여 km 떨어진 항구도시입니다. 에게 해로 향하는 겐크레아와 아드리아해로 나가는 레기움 두 항구를 거느린 지중해 연안의 해상교역의 중심지였지요. 그러니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민족의 신들이 집결한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고 1,000 여명의 여사제(창녀)를 거느린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을 만큼 음란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온갖 우상들과 사상들이 유입되고 뒤섞여 지혜의 각축을 벌였고, 신적 능력이 겨뤄지던 곳이었습니니다. 다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을 강조하고 자기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내세우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범죄자의 처형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 신적 능력과 지혜를 추구하는 이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어리석고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은 저들이 추구하는 지혜와 신적 능력이 도리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저들은 똑똑한 것 같으나 사실은 자신들의 주장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말씀의 신빙성을 보증할 기적과 같은 능력을 보이라는 주장입니다.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지성과 사유를 만족시켜 보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거지요. 표적과 지혜는 저들의 믿음에 필요한 조건이며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조건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데 인간이 내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요구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내건 조건이 최고의 것이라 여기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만족을 채우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내세우셨습니다. 저들이 보기에 어리석음과 무능함의 표상인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완전한 도구로 삼으셨

습니다. 그러니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이들에게, 신적 능력을 추구하고 표적을 찾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똑똑하다는 이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보기에 이렇게 어리석고 무력한 십자가가 하나님 의 증거가 될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당당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 삼으시고 더 나아가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세상의 어리석은 이들을 택하시고, 힘있는 자들을 무력하게 하시려고 보잘것없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택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 역시 어리석고 멸시받는 자리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구원받은 이는 누구나 이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



예수님, 당신이 지신 십자가의 크신 힘과 지혜를 저희에게 더 일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신 구원의 능력을 저희가 더 깊이 누리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4월 13일(수) 37

요한복음 13:21-32

두 개의 거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
시니 (요 13:21)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
은 번민하시며 너희 가운데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고 말씀
하십니다. 모두들 당황스러웠겠지요. 선생님을 팔아넘기다니
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담긴 무게 때문인지 쉽게 입을 뗄
수가 없어 사랑받는 제자에게 눈치를 주어 묻게 합니다. 주님
께서는 떡을 한 조각 떼어 유다에게 건넬 것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난은 로마제국과 유다의 지배 권력의 합작품이
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 안에서 일
어난 배신으로 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적이나 원수들의 미움이
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귀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의 외면과 이리저리 휩쓸리는 군중의 환호와 금세 뒤집어버리

는 거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했던 제자의 배신은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시공간, 주고받았던 모든 대화들, 말씀과 치유 안에서 누렸던 기쁨과 영광과 어우러짐 등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이니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변민 가운데서도 이 배신을 드러내셔야 할 증언이라고 이룹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덮어두었다가 그때 가서 꺾으면 될 터인데 굳이 꺼내십니다. 이제 원수들의 음모와 주님의 제자들 안에서의 배신이 예수님의 안팎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세상의 거절이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던 광야에서부터 시작해 끊임없이 이어진 원수와 악마의 음모라면 스승 예수님을 향한 제자의 배신은 그분을 따르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만의 헛된 생각들로 가득한 우리의 거절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는 것은 거짓과 악이 도모한 음해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고도 그분을 부인하는 이들로 인해 일어난 수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거절은 지금도 믿는 우리 안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지독한 것은 그럼에도 사랑이신 주님은 이 고통스런 배신마저도 받아들이십니다. 스승을 부인하는 제자의 배신을 그분은

용인합니다. 그조차도 영원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결코 꺾을 수 없다는 듯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네 할 일을 하라.”

이 수난의 여정에서 우리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주님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거절하는 인생이며 동시에 동행하기 원하는 이 이중성이 우리임을 고백하면서 조심스레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순된 이 두 마음을 받아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무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그 시간을 보냈고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서는 그때가 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유다는 제 발로 어둠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배신의 정점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들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선언하십니다. 배신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기도



주님, 베푸신 사랑을 잊고 당신을 부인하고 배신함에도 내치지 않으시고 품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마음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도 있음을 기억하고 제 영혼을 돌보고 주님께 드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4월 14일(목) 38 성 목요일

요한복음 13:1-17, 31-35b

전권(全權) 행사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 13:14)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자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질 사역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인 자신에게 전권을 맡기셨음을 압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신뢰 가운데 이제 그분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전권 행사가 될 것입니다. 하늘이 위임한 가장 고귀한 일이자 그리스도의 최후 예식입니다.

저녁식사 도중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는 대야에 물을 떠 제자들의 발 밑에 가서 무릎을 굽힙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종이 할 일, 아내가 남편에게 할 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할 일을 주님이자 스승이신 분이 제자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곧 주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묻지도 못하고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엉겁결에 그리스도의 가없는 사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 그래도 이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하며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손사레를 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만약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눌 몫이 없다,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랄 선언입니까? 그동안 그토록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요, 수고한 제자인데요? 그동안의 수고와 동행은 뭐가 됩니까?

주님은 발을 씻겨주며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사랑의 섬김, 이걸 너희가 받아야 하고 그래야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은 뭔가를 행하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선언입니다. 주님이 죄인의 발을 씻기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무너지는 게 구원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의 전권을 지니고 행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게다가 그 사랑은 무차별입니다. 배반할 자도 부인할 자도 뽄뽄이 흩어져 숨어버릴 자에게도 덮치는 사랑입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도 그 사랑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베드로의 여러 단점을 다 가리는 참 순수한 능력입니다.

다 씻기신 후 사랑에 점령당한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선생님이라 주님이라 부르지 않느냐? 옳다. 그런 주이자 선생인 내가 종이자 제자인 너희를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인 거라고 하십니다. 이 설명에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전권으로 보이신 선명한 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질 공동체, 교회의 기반이 무엇을 바탕 삼아야 하는지도 선연히 드러내신 거지요. 믿는 이는 그 깊이도 모른 채 주님의 사랑에 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 사랑은 그분을 따르는 중에 점점 더 생생한 실재로 다가오겠지요.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실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에 점령당했기에 가능한 섬김, 서로 종이 되어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증표입니다.

기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일상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본을 새기며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 닮아 가는 한 날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언제나 저희가 주님 사랑에 먼저 점령당한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해주소서. 아멘

4월 15일(금) 성금요일

시편 22편

십자가의 신비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 22:1)

겟세마네에서 잡힌 후 로마 총독부로, 대제사장의 관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모욕을 당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세워졌습니다. 그 모욕과 고통의 시간을 오롯이 그분 홀로 겪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들만 눈물로 그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홀로 매달려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의 말씀을 외칩니다. 성서시대 히브리인들은 첫 구절을 인용하여 그 단락 전체를 의미하곤 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시각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탄식으로 시편 22편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은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머물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반복하여 탄식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너무 멀리 계십니다. 그의 위기는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고 당신은 무력하여 도저히 그 한없는 간격을 채울 수 없습니다. 고난은 심중하여 절망으로 몰아가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원수들까지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하신다(8절)고 인정합니다.

그분은 고통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이 잔인한 폭력의 실상을 토로합니다. 저들이 저지르는 폭력은 야수들의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저들의 인간성은 한낱 가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몸은 발겨지고 뼈마디는 부서집니다. 옷마저 벗기워 사람들이 나눠 가짐으로써 마지막 치욕까지 당합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저들을 저주하거나 벌을 내릴 것을 청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죄가 없노라고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세례 요한이 처음 본 대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인간이 겪는 고통의 가장 정점에 닿아있습니다. 그분은 인간 비극과 고난의 가장 극점에 닿아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다 품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그분이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 땅에 오실 때 구유에 누우실 만큼 너무도 겸손히 오셔서 아무도 그분보다 겸손해질 수 없게 하셨듯이, 그분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되 끝끝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그 누구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않도록 버림받음과 모욕의 정점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버림받음과 고난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영광을 드러내신 거지요. 이 시편 후반부의 감사와 감격은 고난 속에 담겨진 구원을 선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절망과 끝이 아닌 하나님의 신비가 담긴 길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선택한 일을 하고도 고난을 당하고 견뎌 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먼저 본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이 신비에 눈뜬 그리스도인들이었으니 어떻게 교회가 십자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겸손하게 오셔서 고통을 보이시고 고통 가운데 머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신 주님의 길을 저희도 따라 걸을 수 있게 도우소서. 저를 위해 감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저희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4월 16일(토) 40 성 토요일

마태복음 27:57-66

하나님의 침묵, 인간의 도모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마 27:66)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난 뒤 날이 저물었습니다. 주님을 존경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아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장례의 절차를 치렀고 여인들은 깊은 슬픔 가운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것 같던 희망이 사라졌기에 슬픔을 가눌 길 없지만 그들은 남은 사랑마저 마음을 다해 그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얼른 이 모든 소란이 정리되길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총독을 찾아가 혹시라도 시신 도난이 일어날까 방비책을 마련합니다. 그들은 이제껏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하고 위기를 일으킬 뻔한 모든 흔적을 한시라도 빨리 지우고

싶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던 그들이지만 거룩한 안식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그저 대책 마련에 바쁩니다. 총독을 설득하여 경비병을 얻어내고 이 모든 일이 탈 없이 지나 아무 문제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대비하고서야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게 애쓴 결과 돌로 봉인된 무덤 앞에는 로마제국의 경비병들이 섰습니다.

성서는 예수께서 무덤에 묻힌 뒤의 하루를 오롯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침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산에서의 변모와 수난의 거듭된 예고, 예루살렘 입성과 환호, 성전에서의 가르침과 종교 지도자들의 질시와 음모, 겟세마네의 기도와 배신, 그리고 흠어진 제자들, 홀로 걸으며 받으신 모욕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하나님의 침묵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고요히 잠들어 계시고 주님을 사랑하던 이들은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마치 조각상 피에타처럼 침묵은 슬픔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신적 위엄과 권능, 영광의 현현이 아니라 아드님의 연약함과 수난 그리고 죽음으로 그분의 영원한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에 응답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아드님 그리스도의 헌신을 기억하며 믿는 우리 또한 침묵 가운데 이제까지의 걸음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새겨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 털썩 주저앉는 탄식으로 시작한 걸음이 십자가와 무덤의 침묵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여정 동안 은총으로 부어진 말씀을 의지하여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날마다 일깨워주신 말씀, 순간마다 허락해 주신 사랑의 은총,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귀를 활듯이 들려주신 음성을 침묵을 통해 더 깊이 간직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베푸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어 못알아듣고는 고집 피우던 우리 자신, 금방 잊고는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던 우리의 모습 또한 돌아볼 만합니다.

저들은 빨리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계획하지만 믿는 이는 슬픔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침묵과 더불어 그분의 아픔과 사랑에 더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



침묵 가운데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로 인하여 무덤에 누우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침묵과 슬픔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도 고요한 이 하루 가운데 말없으신 주님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아멘.

사순절기를 위한 음악과 해설

지강유철

《장기려 그 사람》 저자, 총신대 교회 음악과 지휘 전공)



삶 전반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이 대림이나 사순절 절기 때 종종 간과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순절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가르쳐서는 안됩니다. (.....) 십자가만 바라 보라고 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으로 난 사랑과 희생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외로움과 슬픔을 겪고 있는 이들과 동행하며 섬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박충구 전 감신대 교수의 말입니다. 사순절이나 부활절 설교가 예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지금 여기 우리 이웃의 슬픔과 고통에 눈길 줄 겨를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쓸림 현상

은 교회 음악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개신교에서 절기 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란 20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작곡된 칸타타나 극히 일부 클래식 작곡가의 작품에 국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특정 시대나 유명 작품에서 범위를 넓히고, 내용 또한 좁은 의미의 부활이나 수난에 얽매이지 않도록 선곡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교회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묵상 성경이 그렇고, 교회 음악의 전통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름의 원칙으로 곡을 선별하다 보니 우리 시대에 작곡된 사순절 관련 음악을 포함시켰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품입니다. 그런 음악과 익숙해지려면 조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갖 불편을 감수하며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 깊게 만나려는 분들이기에 이런 부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별한 음악으로 더 풍성한 사순절을 기대합니다.

브람스

〈오르간을 위한 11개의 코랄 전주곡〉



교회 음악을 이야기하면서 파이프 오르간을 빼다는 건 상상하기 힘듭니다. 피아노나 드럼은 교회 음악으로 부적합하거나 불경스럽다고 하기 위해 오르간만이 교회 음악에 적합하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1833-1897)의 마지막 작품은 〈오르간을 위한 11개의 코랄 전주곡〉입니다. 19살에 처음 오르간 독주곡을 편곡한 브람스는 23살부터 26살까지 매년 한 곡씩 오르간 독주곡을 썼습니다. 그 이후 40여 년 동안 오르간 곡을 작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브람스가 죽던 해에 오르간 작품을 썼습니다. 죽음이 저만치 다가오는 걸 느꼈기 때문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클라리넷, 비올라,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브람스는 좋아했고 그 악기를 위해 곡을 많이 썼습니다. 20대에 잠시 관심을 보였던 오르간을 그가 좋아했던 악기라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브람스가 마지막 작품으로 오르간 독주곡을 남긴 건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해럴드 손버그는 《위대한 작곡가들의 삶 2》에서 이 작품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작품인 〈오르간을 위한 열한 개의 합창 전주곡〉에는 브람스 시대 음악에서만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고요함이 깃들어 있다. 이를테면, 하이든의 후기 교향곡에는 여전히 젊음이 넘치지만, 브람스의 후기 작품에는 젊음이나 혈기를 내세우는 부분이 없다. 낭만주의의 황혼이랄까. 저물어가는 시대가 발산하는 특유의 빛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말러 음악에서 느껴지는 이글거리는 화염도 아니요, 브루크너 교향곡에서 느껴지는

지평선에 반쯤 고개를 내민 거대한 원반의 빛도 아니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음악처럼 태양 표면에서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빛도 아니다. 브람스의 빛은 침착하고 따뜻하다. 음악의 재료를 완벽하게 다룰 줄 아는 작곡가의 작품이자, 완벽한 기술과 그윽하고 훌륭한 풍미가 만난 결과물이다.”

연주는 케빈 보우어이고 녹음은 안데르센의 고향으로 유명한 덴마크 핀섬 북부에 있는 공업 도시 오텐세 주교좌 성당 오르간을 사용했습니다.

하이든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



오스트리아 음악가 하이든은 스페인 남부 카디츠의 고위 사제 호세 살루스로부터 청탁을 받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을 작곡했습니다. 고난주간 성 금요일 강론 때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을 하나씩 강론한 뒤에 들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이 작품은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 앞과 뒤에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곡을 추가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은 모두 합쳐도 200 글자가 채 안 됩니다. 채찍과 망치와 창에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

깨지는 고통 속에서 더 길게 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곡을 의뢰한 사제는 어떤 이유에서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을 낭송하고 풀이하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케스트라가 가사 없는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을 연주하게 했을까요. 음악 속에서 말씀이 풍성해 진다고 믿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신부의 강론만으로는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이 충분히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일까. 하이든이 현악사중주와 오라토리오 버전을 새로 만든 걸 보면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은 그 시대 신자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예수가 남긴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을 하이든은 한 곡당 약 10분 길이로 작곡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일곱 말씀 연주를 매일 한 곡씩 들으며 묵상 시간을 갖는다면 이전과 다른 사순절을 체험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가사가 있는 합창 버전으로 골랐고,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가 지휘를, 쇤베르크 합창단과 빈 콘체투스 뮤지쿠스 합주단입니다.

세자르 프랑크

오라토리오 <팔복>



프랑스 작곡가 세자르 프랑크(Cesar Franck, 1822-1890)는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던 경건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프랑크는 ‘생명의 양식’이란 곡으로 유명합니다.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프랑크는 자신의 가톨릭 신앙을 표현하는 〈장엄미사〉 오라토리오 〈구원〉 등등의 작품에 치중했습니다. 프랑크에게 가장 중요한 작품은 산상수훈을 음악으로 형상화한 오라토리오 〈팔복〉(Les Béatitudes)입니다. 솔리스트를 8명이나 요구하고 오케스트라가 필요한 거대한 합창곡입니다. 프랑크는 이 작품의 완전한 초연을 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소규모 편성으로 축소하여 자택에서 연주한 게 전부입니다. 그의 종교 작품이 당시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천 년 동안 서양 음악사에서 예수의 산상수훈, 그 중에서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큰 규모의 오라토리오로 작곡한 음악가가 프랑크 말고 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클래식 애호가гаа 아니라면 러닝 타임이 2시간에 가까운 곡을 한 자리에서 다 듣기엔 쉽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여 하루 한 곡씩 들어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연주는 라파엘 쿠벨리크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 합창단이고 솔리스트로는 제시 노먼, 파스벤더, 피셔 디스카우 등이 맡았습니다. (유튜브에 곡 제목 옆에 파란색 글씨로 시간을 클릭하면 원하는 곡을 들을 수 있습니다).

0. 프롤로그

- I.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 II.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 III.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 IV.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 V.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다
- VI.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 VII.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VIII. 의를 위해 핍박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모차르트

〈고아원 미사〉



예수의 사순절을 기념하는 목적이 나만의 영성 심화를 넘어서 우리 이웃을 둘러 보는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한스 쿵에 의할 때 모차르트는 "독실한 척하는 교회 인사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 행동을 증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잘츠부르크의 대주교 콜로레도와 같은 인간이 대표적일 겁니다. 그 사건이 워낙 유명했기에 잘츠부르크는 물론 빈의 성직자들이나 보수적 신앙인들에게 모

차르트는 비판적 가톨릭 교도로 찍혔습니다. 가톨릭 교계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한술 더 떠서 1786년에 체제 전복적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발표하고 난 다음엔 성직자들에 이어 귀족들까지 멀리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차르트가 무신론자나 타종교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건 아닙니다. 그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여행을 하거나 친분을 오래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가 교제를 원했던 사람은 진심으로 그 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차르트는 1768년 12월 7일,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가 참석한 가운데 빈 3구에 위치한 렌베그 고아원 성당 헌당 기념 미사에서 자신이 작곡한 <바이젠하우스(고아원) 미사' K.139를 초연했습니다. 당시 12살 꼬맹이었지만 러닝 타임 40분 넘는 분량의 관현악 반주가 딸린 대 미사를 작곡해냈을 뿐 아니라 지휘까지 맡았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 입구에는 모차르트가 테레지아 여제 앞에서 <고아원> 미사를 연주했음을 기념하는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초기 미사를 들으며 모차르트의 신앙을 생각합니다.

이 곡을 지휘한 클라우디오 아바도는 종교 전문 지휘자가 아니고, 모차르트의 종교 음악을 모두 음반으로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바도는 모차르트가 겨우 12살에 작곡한 곡을

녹음으로 남겼습니다. 어린 모차르트의 첫 장엄미사란 역사적 의의에 더해 음반으로 남겨 둘 그만의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싶습니다.

구노

오라토리오 〈죽음과 삶〉



프랑스 작곡가 샤를 구노(Charles Gounod, 1818-1893)는 20여 개의 미사곡과 6개의 오라토리오, 100곡의 종교 모테트를 남겼습니다. 한 때 성직자가 되기 위해 생 쉴피스 신학교에 입학하기도 했습니다. 3년간의 로마 유학을 마치고 파리로 와서는 우리에게 기해 박해 당시 3명의 신부가 순교했던 파리 외방전교회(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소속의 음악감독 겸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나이 51살 때는 교황 비오 9세의 서품 25년을 축하하기 위해 〈교황 행진곡〉을 작곡하여 헌정했는데 바티칸에서는 1949년 이 작품을 공식 국가로 채택하였습니다. 1847년에는 카르멜 수도회의 견습 수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구노는 가톨릭 측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준 성직자 의상을 입었고, 서명도 아베 구노라고 했습니다.

1885년에 작곡한 〈죽음과 삶〉은 제1부가 ‘죽음’ 이고, 제2부

가 ‘심판’, 제3부가 ‘삶’을 내용으로 하는 오라토리오입니다. 구노는 악보를 출판하면서 서문에 ‘왜 삶 앞에 죽음이 놓여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원한 것들의 순서에서 죽음은, 삶 앞에 온다.

죽음은 매일 죽는 존재들의 마지막일 뿐이다. 그것은 계속되는 ‘죽음’의 끝일뿐이다. 하지만 죽음은 그 자체로서 더 이상 죽지 않는 존재의, 즉 탄생의 첫 번째 순간이기도 하다.”

오라토리오 〈죽음과 삶〉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세상이 슬쩍 보이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작곡가가 깊은 영적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쓸 수 없는 곡이란 의미입니다. 연주는 미셸 플라송이 지휘한 음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3시간에 가까운 대곡입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고 음악이 아름다워서 몇 일에 나눠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레차니노프

〈에큐메니컬 미사〉



러시아 작곡가 알렉산더 그레차니노프(Alexander Grechaninov 1865-1956)는 14살에 피아노를 처음 보았을 정도로 음악을 늦

게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음악하는 걸 반대해 자립이 거의 불가능한 그를 위해 당시 저명한 작곡가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죽을 때까지 경제적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레차니노프의 첫 번째 교향곡 초연 지휘를 맡았습니다. 1910년까지 차르에게 연금을 지급받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체제를 더는 견딜 수 없어 1825년에 프랑스로 이민을 갔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터지자 1939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956년 사망할 때까지 뉴욕에서 활동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그래미 녹음상을 받은 황병준이 녹음한 〈성 고난주간〉이란 무반주 합창 음악 음반 이외에는 그의 작품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리소스톰을 위한 4편의 전례 음악, 베스페레(저녁 기도), 여러 편의 미사곡을 작곡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정교회 음악은 무반주 전통에서 요지부동입니다. 러시아에 있던 1911년에 작곡한 오라토리오 〈성 고난주간〉은 반주가 없습니다. 1936년에 쓴 〈에큐메니컬 미사〉에는 관현악 반주를 붙였습니다. 그레차니노프에게 어떤 내적 변화가 있었을까요. 확실한 건 그레차니노프가 그리스 정교회에 갇히지 않고 에큐메니컬을 지향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사순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연주는 1999년에 이 곡을 세계 최초 녹음한 러시아 국립 교향악단과 지휘자 폴란스키입니다. 이 곡 역시 욕심을 내려놓

고 하루 한 곡씩 듣기를 권합니다. 아름답고 심오한 경험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슈만

〈미사사크라〉 중 ‘키리에’



로베르트 슈만(1810-1856)은 예수의 수난이나 죽음 또는 부활을 주제로 작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의 예외를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슈만은 라인 강에 투신 자살을 기도하기 2년 전, 그러니까 엔데니히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기 4년 전에 그의 생애 처음으로 〈미사 사크라〉와 〈레퀴엠〉을 작곡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였지만 슈만은 그 어떤 교회 관련 일에 종사하지 않았고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지 않았습니다. 슈만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 음악 작곡가가 아닙니다. 그의 말마따나 “종교는 없지만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슈만, 그래서 평생 교회 음악을 작곡하지 않았던 슈만은 무슨 이유로 1년 사이에 미사와 레퀴엠이란 목록하지 않은 교회 음악을 두 곡이나 남겼을까요.

두 개의 종교적 작품을 쓰기 1년 전에 슈만은 아우구스트 슈트라커얀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능력을 종교 음악에 쏟는

일은 예술가가 도달해야 할 최고의 목표다.”라는 의미 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페터 노이만의 연주로 <미사 사크라>의 첫 곡 ‘키리에’를 들읍시다. 들으니 절로 기도가 되는 연주입니다.

아르보 페르트

<스타바트 마테르>



에스토니아 출신의 작곡가 아르보 페르트(1935~)는 젊은 시절에는 급진적인 현대 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국 에스토니아가 소비에트 연방에 강제 점령되면서 공산당에 염증을 느끼고 러시아 정교회의 영적 신비와 고대 그레고리안 성가,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음악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치유와 구원, 그리고 성찰이 그의 음악적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스타바트 마테르>는 알반 베르크란 작곡가를 기리는 음악재단으로부터 그의 탄생 100주기 기념으로 위촉을 받아 1985년 완성했습니다. ‘스타바트 마테르’는 라틴어로 ‘어머님이 일어서시다’란 뜻입니다. 십자가 곁에 비통하게 우시는 성모 마리아를 그리는 내용입니다. 중세 이후 비발디, 스카를라티, 페르골레시, 로시니, 구노, 드브르자크 등등의 작곡가들이 <스타바트 마테르>란 제목과 같은 가사로 곡을 썼습니다. 스타바트 마테

르가 미사 통상문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작곡가
이지만 그의 음악은 처음 듣는 사람들도 빠져들 수 있을 만큼
호소력이 강합니다. 아르보 페르트는 복잡한 오늘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영혼의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가사를 첨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 곁에서
고통의 어머니 눈물짓고 계시네.
어머니의 마음은 창검에 찔린 듯 탄식하며 슬퍼하네.
선택되신 거룩한 어머니,
외아들 예수 운명하시니 애통함이 끝없네.
아들 수난을 바라보는 비통함,
마음에 이는 환난 중에 어머니 홀로 계시네.
예수님의 어머니 이런 고통당하심을 보고 뉘 울지 않으리오.
십자가 위의 아들 흘리신 피에 젖은 붉은 땅을 어머니 친히 보시네.
사랑의 샘이신 어머니,
당신 고통 느끼게 하사 당신과 함께 울게 하소서
저희 마음 불타올라 주 예수를 사랑케 하사 주님 맘에 들게 하소서.
거룩한 어머니, 못 박하신 주의 상처 제 마음에 깊이 새겨 주소서.
예수의 수난을 마음에 새겨 그 상처를 닦게 하소서.
정결하신 성모 마리아여
심판 날 저를 지켜 주시어 영원한 별을 면하게 하소서.

예수님 육신 죽을 때 제 영혼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바흐

〈마태 수난곡〉, ‘우리들은 눈물에 젖어’



20대 초반에 국립합창단이 연주한 바흐의 수난 오라토리오 〈마태 수난곡〉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연주회를 기점으로 바흐가 지루하거나 어렵다는 미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흐의 이 수난 오라토리오에서 가장 충격인 곡은 ‘우리들은 눈물에 젖어 무릎 꿇고 무덤속 당신을 향하여...’로 시작되는 마지막 합창입니다. 드라마틱한 곡이 많고 가슴 절절하게 만드는 곡도 적지 않았지만 마지막 합창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겐 그랬습니다. 그 공연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예수의 시신을 만졌습니다. 그 충격은 컸습니다. 스물두 살이 되도록 숨이 끊어진 예수께 저를 데려가 주님의 시신을 만지게 했던 설교나 성경 공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다수 한국 개신교에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하나님 아들의 죽음은 피상적이고 감상적 수준에서만 언급되었던 듯합니다.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의 입관에 참관 하듯 신자들을 예수의 죽음 앞에 세워주지 못했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의 성 금요일이 지나면 다소 긴장이 풀려 부활절 아침까지
별 생각 없이 시간을 흘러 보냈습니다. 하긴 사도신경에서 예
수가 죽음에 내려 가신 사건은 아예 고백에서 빼버렸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점에 관한 한 한국 개신교가 과거
에 비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입니다. 2022년 부활 바로 전
날에 이 곡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연주는 카를 리히터가 지휘
한 뮌헨 바흐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1959년 연주입니다. 다음
은 이 곡의 한글 가사입니다.

우리들은 눈물에 젖어 무릎꿇고
무덤속의 당신을 향하여 편히 잠드시라 당신을 부릅니다.
지칠대로 지치신 몸
당신의 무덤과 묘석은 번민하는 마음에
편안한 잠자리가 되고
영혼의 휴식처가 되소서
이리하여 이 눈은 더 없이 만족하여
우리도 눈을 감나이다.
우리들은 눈물에 젖어 무릎꿇고
당신을 부르나이다.

헨델



〈메시아〉 중에서 ‘내 주는 살아 계시고’

프랑스 리옹 출신의 조각가 루이 프랑소와 루빌리아크(Louis-François Roubiliac, 1702-1762)는 1738년 헨델의 좌상 제작으로 큰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살아 있는 사람의 동상 제작이란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문제로 곤혹을 치렀다는 기록이 얼른 눈에 띄지 않는 걸 보면, 경제적으로 파산 지경이었으나 명성은 여전한 모양입니다. 헨델은 말년에 유언장 내용을 몇 차례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자세히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 1) 가난한 음악가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1000파운드를 지원하고, 2) 자신이 죽은 뒤 하인 모두에게 1년치 임금을 지급하고, 3) 중복이었던 존 뒤버크에게 그의 그 어떤 친구, 연주자, 대본가보다 월등하게 많은 800파운드와 입던 옷 전부를 준 일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헨델은 죽기 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자기 기념비 건립 비용으로 600파운드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헨델하면 심중팔구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떠올립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 국왕을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다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는 ‘할렐루야’ 합창의 인기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세워진 헨델 동상은 좀 이상합니다. ‘할렐루야’ 합창이 아니라 ‘내 주는 살아 계시고’란 제목의 악보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헨델은 엉뚱한 악보를 손에 쥐고 있을까. 영국에서는 ‘내 주는 살아 계시고’란 곡이 〈메시아〉를 대표할까. 아니면 600파운드를 자기 기념비 건립에 쓰라고 유언장에 남긴 헨델이 그 악보를 지정 했을까. 물론 일부 지휘자나 음악가들이 ‘내 주는 살아 계시고’가 〈메시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 목소리는 이내 ‘할렐루야’ 합창의 명성에 파묻힙니다. 진실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든 정답을 주장하거나 강요할 맘은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런 기회를 위해서라도 이번 부활 주일엔 〈메시아〉 제3부(부활과 영생)의 첫 곡 ‘내 주는 살아 계시고’의 경청을 권합니다. 연주는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한 잉글리시 콘서트와 소프라노 알린 오저(Arleen Augér)입니다.

